

南北體育會談

第2次 實務代表接觸 會議錄

1989. 12.



國 土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 目 次 〉

1. 一般事項 .....	3
2. 會議錄 .....	7
附錄：代表團 記者會見 .....	91



#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89. 12. 6 (水) 10:00 ~ 12:49

나. 場 所 :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p style="text-align: center;">〈首席代表〉</p> <p>任 台 淳</p> <p>(大韓올림픽委員會 委員)</p>	<p style="text-align: center;">〈團 長〉</p> <p>장 용</p> <p>(조선올림픽위원회 서기장)</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曹 英 承</p> <p>(大韓올림픽委員會 委員)</p> <p>朴 秀 蒼</p> <p>(大韓올림픽委員會 委員)</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김 세 진</p> <p>(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p>허 혁 필</p> <p>(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

會 議 錄

---

## 2. 會 議 錄

### 〈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

南(任台淳) : 안녕하세요? 장선생.

北(장 응) : 안녕하세요?

南(曹英承)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南(朴秀蒼) : 안녕하세요?

北(김세진) : 안녕하세요?

南(任台淳) : 자, 그 뒷 분들도 안녕하세요? 앓읍시다.

뭐 날씨가 오늘도……. (一同웃음)

北(장 응) : 날씨 좋습니다. 오늘은 진짜 좋습니다.

北(허혁필) : 우리가 찍는 날씨야 뭐.

南(任台淳) : 體育會談 날짜는 참 잘 잡은 것 같습니다.

北(장 응) : 12月初 實務代表接觸 이후에 內外에서 상당히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問題들에 대해서도 많이 意見一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 實務代表들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특히 아시아競技大會에 참가하기로 되어있는 나라들에서도 輿論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雙方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오손도손 잘 討論해 나간다면 큰 위기가 없겠다 하는 信心을 더 가지고 任先生이랑 잘 힘을 합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듯이…….

南(任台淳) : 그러면 장선생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고 사실 우리가 北京 아시아게임에 單一팀 問題를 協議를 하고 있는데 지금 南과 北 할 것 없이 南北關係를 改善을 하고 서로 문을 여는 데 앞장을 서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會談에 임한다면 解決 안 될 問題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問題는 얼마만큼 이것을 그야말로 實踐에 옮기겠다 하는 마음이 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덤벼드느냐 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오늘 接觸에서 좋은 結果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세요 장선생님?

北(장웅) : 任先生님 말씀하는 것 보니까 오늘 두번째 實務代表接觸에서도 成果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朴秀蒼先生, 曹英承先生 다 뭐 이제는 우리 이거 이번에 몇번째입니까?

本會談에서 다섯번 하고…….

南(朴秀蒼) : 일곱번째죠.

北(장웅) : 일곱번째죠? 일곱번째 숫자가 아주 좋습니다.

南(朴秀蒼) : 「럭키 세븐」( Lucky Seven )이예요. (웃음)

北(장웅) : 예. 그래서 이번에 일곱번째인데 本會談에서 다른분들은 首席代表라든가 團長님들은 다섯번이고 우리가 아무래도 더 많이 接觸을 해 나가니까 얘기가 더 빨리되고 또 實務代表接觸 自體가 오손도손 討論을 해서 協議를 해 가지고 나가는거니까 아무래도 有利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저 잘 討論해서 그렇게 해 나갑시다.

南(任台淳) : 뭐 우리가 일곱번째 만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있는데 일곱번째가 좋은 숫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12月7日날 「스웨덴」에서 「탁구오픈국제경기」가 열리지 않습니까?

北(장웅) : 예.



南(任台淳) :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貴側 選手들도 거기에 나간걸로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單一팀 問題를 협의할 하는데 南北이 국제 사회에 나가서 나란히 서로 좋은 기량을 보일 것 같으며는, 또 거기서도 오손도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南과 北 가릴 것 없이 이쪽도 좋은 점수 올려가지고 이렇게 國際社會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는 그것이야말로 單一팀에 希望을 갖게 하는 또 하나의 장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의 「싱가포르」의 축구경기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꼭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單一팀에 거는 우리 겨레의 期待에 좋은 結果를 가져오기를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北(김세진) : 그래서 任先生이 이제 實踐이 重要하다는 말씀을 오늘도 하셨는데 정말 우리 2次 實務代表接觸에서는 실천적으로 서로 差異나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서 唯一팀의 좋은 結果를 맺으면 이제 그런 教育에도 아마 選手들에게 커다란 힘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北(장 웅) : 그만 討議에 들어갑시다.

南(任台淳) : 뭐, 會談을 시작합시다.

역시 어제 내려오셨겠네요?

北(장 웅) : 예. 아침에 떠나셨습니까?

南(任台淳) : 예. 우리야 뭐…….

北(허혁필) : 오늘은 會議室이 좀 요전보다 나아졌구만요.

南(任台淳) : 예. 좀 따뜻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北(장 웅) : 그래서 우리가 첫번째 實務代表接觸에서 네번째 項 選手選拔問題를 討論했는데 協議를 했는데 거기서 19個 項目中에서 10個가 內容

上 다 승의가 됐고 2개가 지금 보류상태에 연구중에 놓여있고 이제 순서로 보면 다섯번째項 選手選拔인데 먼저처럼 討議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번에 그렇게 會談하니까 아주 成果가 컸어요. 우리가 실제상 지금 네번째項을 討論한 이후에 確認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여덟번째, 아홉번째, 열번째까지 이런 項들에서 대체적으로 우리 立場을 밝혔습니다.

貴側에서 뭐 또 다른 변동이 없는지 確認을 못했지만 우리 立場은 밝혔고 그 다음 지금 다섯번째 選手訓練부터 내려가면서 意見이 一致되지 않는 서너가지의 項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訓練부터, 選手訓練項부터 우리 아직 다 쳐보지 못한, 한번 죽 내려 읽고서 우리가 이미 同意는 했지만 다시 確認하는 요전번 方式대로 任先生이 얘기한 방식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意見입니다.

南(任台淳): 예. 그러니까 貴側은 5項부터 檢討를 해 나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北(장웅): 예. 한번 죽 마지막까지.....

南(任台淳): 우리 立場에서도 5項부터 오늘 檢討가 具體적으로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第1次 接觸때 結果를 돌이켜보며는 4項까지를 細部項目에 이르기까지 전부 檢討를 해서 協議案의 內容, 우리側 協議案을 中心으로 討議를 해서 意見이 一致된 事項을 確認을 했고 또 서로간에 異見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異見의 內容이 뭐다 하는 것을 분명히 確認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接觸때 異見이 있었던 부분이 세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呼稱問題에 대해서 우리말 表記와 英語表記에 대해서는 雙方間에 아무런 異見이 없이 合意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단지 이번 아시아게임의 주최국인 現地의 中國人들이 表記하는 漢字의 表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貴側에서는 合意文案에 넣을 필요가 없겠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가 하려는 또 말하자면 같이 가서 「高麗」라는 말은 쓰지 않겠다 하는 것을 그 얘기를 北京組織委員會에 같이 가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까지 合意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적어도 「可里亞」, 「可禮亞」 두가지 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5次會談 때도 그랬고 지난 1次接觸 때도 貴側으로서도 案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우리側 案이 뭐 꼭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貴側도 案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기왕이면 우리가 國際競技大會에 單一팀으로 나가는 마당에서 現地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用語로 우리를 불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趣旨의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貴側의 意見を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그리고 選手選拔問題와 關係해서 두가지 異見이 있었죠. 選手選拔 4項의 細部項目 「나」項에 해당되죠. 기본적으로 異見이 있었던 것은 選拔戰을 公開적으로 할 것인가 非公開裡에 할 것인가.

그리고 『南北間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아는 데 거기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採點種目的 마지막 項에다 집어넣던 『2名 이상이 出戰을 하는 細部種目に 있어서는

진 팀에서도 1名 정도는 參加할 수 있도록 하자』하는 部分을 貴側은 다른 項目에 까지 適用을 시키자고 하는 立場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돌아가서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意見을 말씀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見解差異가 나는 細部項目이 너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見解差異가 있는 부분은 몇가지가 안 되니까 지난번 것에 대해서도 한번 立場을 들어보고 그리고서 죽 나가며는 見解差異가 있는 問題가 빨리빨리 풀려나가는 方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北(장웅) : 그래서 任先生, 이렇게 합시다.

任先生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첫번째 中國말 表記問題 다음 選拔戰競技形式問題, 그래서 細部種目に 대한 견해상 差異問題, 差異를 많이 감수해서 이제는 이미 本會談에서도 여러차례 했었고 또 첫번째 實務代表接觸에서도 우리의 意思도 發表했고 또 그 쪽의 意思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저 다 쳐보지 못한 것,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5項부터는 전혀 뜻은 우리 立場은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本會談卓에서나 먼저 實務代表接觸에서도 전혀 論議가 協議가 돼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훑고 다 쳐보지 못한 것 죽 훑고 그 다음에 다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方法으로 했으면 좀더 時間도 절약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南(任台淳) : 그럼 그렇게 討議를 하자는 것은 좋은데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지난번에 貴側에서 이번에 意見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새로운 意見을 가지고 오셨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 部分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意見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



에 이제 貴側의 意見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討議된 부분에 대해서는 貴側에서 혹시 무슨 變化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의 立場과 同一한 것인지 그것이 우선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본건데 그러면 變化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北(장웅) : 아니, 이거 먼저 討議하고. 죽 한번 10項까지 내려가봅시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南(曹英承) : 이렇게 하죠. 비슷한 意見인데 우리가 實務代表接觸이라고 하는 性格으로 봐서 1次接觸을 지난번에 해서 서로 심도있는 討議를 해 나가는 가운데 몇가지 項에 대해서 保留했거나 분명히 意見이 다르다 하는 것으로 일단 1次接觸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만났단 말이에요. 다시 만났으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事項에 대해서 무슨 討議를 한다거나 스스로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데 있어서도 다시 시작할 때는 「review」를, 지나간 것을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는 것이 常識적인 절차고 또 더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벌써 한 며칠간 지났으니까 貴側에서 意見을 생각했을테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한 그것을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는 順序로 하는 것이 굉장히 順調로울 것 같아요.

北(허혁필) : 曹先生 말씀도 옳지요. 그렇게 하는 方法도 있는데 이제 書記長 同志와 任代表間에 討議가 있어서 이 問題 넘어가자고 하니까 넘어가는데 어떻게?

南(任台淳) : 하여간 두가지 方法을 우리가 考慮할 수 있죠. 두가지 方法을 考慮하는 데 우리로서는 앞의 部分에 대해서 立場의 變化가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저 간단한 問題라고 생각하는데요.

北(장웅) : 아니, 그러니까 討議합시다. 우리 意見도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하나까 討議를 합시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曹先生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

南(曹英承) : 간단한 方法이에요.

北(장웅) : 그렇게 하다말면 계속 1課, 그저 1課만 그렇게 하면 學期 進度를 나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感이 있어요. 그래서 합시다. 내 하는데 그럼 먼저 죽 나가고 한번 다시 소급해 올라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北(허혁필) : 연결을 해서, 1次때 우리가 했던 거기에서 이제 오늘 연결해서 또 다음 事項을…….

北(장웅) : 그러니까 오늘 뭐 크게…….

北(김세진) : 뭐 그 時間이 다른 것 없으면 또 이렇게…….

南(任台淳) : 아니, 다른 것은 몰라도 『두사람 이상 나가는데 한 사람은 꼭 들어가도록 한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해 줄 수 없어요?

北(장웅) : 아니, 우리 意思를 얘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죽 내려가고 소급해서 안 하겠다는데 아니고, 합시다.

南(任台淳) : 그러니까 나머지를 檢討한 후에만 얘기를 하시겠다.

南(曹英承) : 그러면 1番 「選手團呼稱」부터 한 몇가지 서너가지 事項에 대해서 意見은 가져왔는데 뒤에 討論하고 난 뒤에 말씀하시겠다.

北(장웅) : 글썄 意見事項인데……, 그렇게 합시다.

南(任台淳) : 그런데 내가 5個項부터 討議하자고 貴側이 要求를 하면 우

리는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도 方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討議를 들어가는데, 내 말씀을 상당히 理解性을 가지고 들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지금 장선생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난번에 4項까지는 細部項目討議를 분명하게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貴側이 一般的으로 意見을 우리側에 提示한 정도로 끝난 것이지 실제 項目別 討議는 해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게 對外的으로 이게 非公開會議인데, 우리가 會議하고 있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닌거고 그런데 서로가 나가서 各其 便利한 대로 發表를 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편리한 대로 나름대로 發表를 하는 데 그 內容이 서로가 너무 어긋나 가지고는 이게 會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래들이 알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越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한 두가지만 貴側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더라는 예컨대 몇개 項目 가운데 몇개 項目을 남겨놓고 전부 合意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發表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서 지금 4個項까지 具體的인 討議를 했는데 合意된 點은 이렇고 意見差異가 있는 點은 이렇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貴側에서 대체적인 意見을 해온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合意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發表를 하는데는 問題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적어도 合意事項에 대해서 對外的으로 얘기할적에는 內容과 일치되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적어도 對外的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合意했노라 하고 일단 發表를 하고나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런 저런 얘기를 말하자면 合意를 하지 않을 것처럼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留意를 하는게 좋겠다 하는 意見を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會談이 잘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래들이 불적에 예컨대 어느부분이 왜 合意가 안되고 누가 말하자면 지연할려고 해서 會談이 안된다든가 하고 자주하는 것은 거래들이 듣기에도 좋지 않은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會談을 잘 해나가라는 意味에서 이 會談을 좋은 霧圍氣속에서 앞으로도 持續해야 되겠다 하는 衷情에서 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討議에 들어가죠.

北(장 웅) : 그러며는 지금 任선생 얘기를 들으며는 貴側이 하지만 절대 다르게 理解하지 마십시오.

1次代表接觸때 雙方提案對備表를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代表接觸을 했는데, 貴側의 안에 우리가 同意들을 했습니다. 물론 한줄 한줄 지금 다시 톱질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雙方이 오늘 다른 변동이 없다면 일단 貴側에서 提起한 案에 우리가 同意를 하면 이건 合意가 아니겠는가 또 우리가 提案한 案에 貴側이 同意하면 合意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그렇게 同意가 된거야 또 다시 변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늘 다른 변동은 없다는 걸 시사한 걸로 제가 이해하겠는데 우

리는 그런 견지에서…….

南(任台淳): 어. 천만예요.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이제 非公開會談이니까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컨대 지난 1次接觸때 貴側이 10個項과 관련해서 案을 가져온 것이 있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물어볼 것 있으면 보여 달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側은 이렇게 準備를 해왔습니다. 해서 貴側에 提示를 해 드렸는데 뭐 보니까 貴側의 案을 내놓고 할려고 그랬는데 우리側 것만을 가지고 자꾸 하자고 우리가 主張을 하고 고집을 해서 할 수 없이 우리 案을 가지고서 討議를 하고 거기에 同意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가 이거 너무 얘기를 하기도 치사스러운 얘기인데.

예컨대 이러한 일들이 더군다나 實務者들이 만나는 會談의 결과가 그것도 非公開로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적어도 기초적인 信義를 서로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이걸 사실 누구 案을 가지고 討議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重要的 것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그런 問題라든가 또는 어느側이 어느側에 同意를 했다 라는 그런 表現 自體가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合意를 했느냐, 合意를 못했느냐가 重要的 것이지 예컨대 선수단 團歌를 뭐라고 했다. 이걸 어느側이 同意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 또 選手選拔을 하는데 記錄 種目에다가 육상, 경영, 역도, 양궁, 사격, 사이클, 조정, 카누, 요트, 골프 이렇게 넣기로 되어있는데 이것 自體가 어느側이 同意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거다.

말하자면 어느側은 하자고 고집하고 어느側은 말하자면 同意만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表現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게 서로가 協力を 해나가고 霧圍氣가 좋도록 하자고 하는 것인데.

어느側은 어느側案만 가지고 고집을 하고 있는데 한 側은 同意만 하고 있는 그런 狀況은 事實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案을 만들었을 때에는 적어도 5次會談때까지의 結果를 가지고 貴側의 案을 充分히 考慮하고 研究를 해서 가능한 한 體育技術的인 基本틀에 벗어나지 않는 한 貴側의 意思를 최대한 尊重하는 立場에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一方的인 同意였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事實은 이게 雙方間에 意見이 一致가 되고 그게 合意書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좋겠다 하는 그런 越旨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北(허혁필) : 그러니까 報道內容이나 形式과 關聯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南(任台淳) : 앞으로 留意를 하라 이겁니다.

北(허혁필) : 報道야 이거 상대방.....

南(任台淳) : 그러니까 우리가 正式으로 抗議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게 非公開 會談이기 때문에 우리가 留意를 하자는 뜻에서 서로 잘하자는 意味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北(허혁필) : 그러면 무엇때문에 接觸 벽두부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任先生 말씀 말마따나 별치도 않은 얘기인데 任先生 표현하신대로

이제 치사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霧圍氣를 흐리게 만드는가.

南(任台淳) : 아니 이것을 霧圍氣를 좋게 하자는 것이지요.

北(허혁필) : 좋게 하자는건데 이거 內容의 報道야…….

南(曹英承) : 그런 意味에서 내가 한마디 드릴게요.

사실 우리 장웅代表하고 任代表님하고 오가는 얘기들은 項目 討議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會談의 成果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意見交換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고 생각나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實務代表 接觸의 性格 問題입니다.

實務代表 接觸에서 우리가 적어도 해야 할 일은 우리가 意見 一致가 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무엇이냐 하는 것을 確認하고 또 本 會談에서도 서로 異見이 있었던 부분은 조정해 보자하는 越旨에서 우리가 實務代表接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實務代表接觸에서 意見이 一致되었다고 하며는 그것이 다음 날짜가 정해져 있는 22일 本 會談에 올려서 確認받고 난 뒤에라야 그것이 合意되었다고 공표하는 것이 事實 性格上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點에 있어서 지난번 여러가지 報道를 보며는 우리는 일체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貴側에서 第4項부터 따지고 보면 59個項인데 50個項은 우리가 一方的으로 수용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의를 보이지 않았든지, 또 50個項에 걸쳐서 合意를 했다든지 하는 內容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우리 實務代表接觸의 性格으로 보나 자세로 보나 앞으로의 우리 진도로 보나 適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事實은 任代表님이 바로 찍어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하면 감정을 건드릴까봐 완곡하게 얘기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 率直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이 非公開裡에 만나는 우리끼리의 얘기를 그 內容을 가지고 自己側에 돌아가서 戰術, 戰略的인 次元에서 꾸며서 얘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相互 없어야 한다는 것은 있다 없다 그것이 問題가 아니라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다 우리가 認定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오늘 4項, 5項부터 討議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問題보다도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이게 신속하게 해결되고 좋은 方向으로 나간다 하는 그런 趣旨이니까 더 오해는 하지 마시고 本質的인 討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南(任台淳) : 그래서 5項부터 들어갑시다. 이런 얘기를 자꾸 길게 얘기하면 서로 얘기가 또 얘기의 꼬리를 낳게 되고 하니까…….

北(장 응) : 이제 任先生, 任先生 얘기한 걸 꼬집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1次接觸에서 결국은 同意를 했느냐 안했느냐 뭐 一方的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러는데 1次接觸이 事實上 나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南(任台淳) : 合意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얘기죠.

貴側이 뭐 同意를 表示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正確히 表現한다면 우리가 뭘 얘기를 합니까?

이게 合意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合意가 되었다면 지금 5



項 이후를 討議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貴側에서 合意했다 해 버리면 그냥 우리 案대로 받아들일것다는 얘기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北(김세진) : 그건 명백히 해야지요.

南(任台淳) : 그러면 그런 意味에서 討議를 안해도 좋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合意를 했다고 貴側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나는 아는데 5項 이후도 다 合意가 됐다하면 그 項目에 대해서는 우리 案대로 그대로 앞으로 異意를 전면 提起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아요.

北(장웅) : 內容上 內容上에서 우리가 合意를 했다. 內容上 合意를…….

南(任台淳) : 그러니까, 물어볼 부분도 있다. 무슨 여러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討議를 하자고 하는 立場 아닙니까? 그러기때문에 討議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合意가 됐다 하는 것은 너무, 더군다나 비공개리에 進行된 이 接觸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對外的으로 알려지는 結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異意를 提起하시면 안됩니다.

北(장웅) : 그 쪽에서도 뭐 報道 다 했더구만요.

南(任台淳) : 우리야 사실보도 했지, 아니 事實報道가 왜 나뵈니까?

北(장웅) : 우리도 事實報道이고 이제 曹先生 뭐 戰略 戰術까지 나왔는데 이렇게되면 서로…….

南(任台淳) : 말꼬리 가지고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北(장웅) : 實務代表接觸인데…….

南(任台淳) : 이제 말꼬리 가지고 얘기 맙시다.

北(허혁필) : 記者가 이제 이와 關聯되어서 글을 쓰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실지 합의가 안된 點을 내놓고 큰 선에서 그게 다 合意되었다 이렇게 하면 記者도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걸 뭘 구태여 들고 이렇게 저렇게 시비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南(任台淳) : 기자가 쓴 것이 아니라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記者가 자기가 合意한 것으로 평가해가지고 쓰는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北(장 웅) : 나는 뭐 있는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南(曹英承) : 예컨대 말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北(김세진) : 曹先生 됐어 됐어요. 조선생 자꾸 불붙는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그러지 말고 됐소 그만하고.

南(曹英承) : 우리가 웃어가면서 하기 위해서…….

北(김세진) : 그건 다 부차적인 문제이니까…….

南(任台淳) : 자, 5항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北(장 웅) : 그래서 5항에 우리 訓練인데 우리 訓練 첫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訓練은 共同訓練과 綜合訓練으로 구분하여 進行한다』이거 표현상에서 아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合同訓練과 強化訓練으로 구분하여 進行한다』뜻은 그저 같지 않습니까?

南(任台淳) : 그래서 귀측으로서는 아마 이부분을 우리측 뜻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되는데…….

北(장 응) : 내용상 같다고 생각합니다.

南(任台淳) : 조금만 계셔 보세요.

北(장 응) : 보십시오. 다른 뜻이 있습니까? 내용상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南(任台淳) : 그러니까 예컨대 귀측은 表現을 合同訓練과 強化訓練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北(장 응) : 그러니까 앞으로 문항정리할 때 문안정리할 때 표현하고 내용은 같지 않은가…….

南(任台淳) : 난 지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지난번에 귀측의 10개 항을 實務者들의 會談이니까 귀측도 이제 10개 항에 대해서 정리된 案이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整理된 것이 있으면 우리쪽에 提示를 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意見만 말씀하셨지 10개 항에 대해 정리된 意見を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側 案을 가지고서 討議를 하자는 말씀인데 그러면 用語상의 問題라든가 사실 合同訓練과 共同訓練 뒤 南北間에 아무런 問題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면 合同訓練이라면 어떻고 共同訓練이라고 하면 어떠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혹시 그 뜻을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짚어 놓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 생각으로는 合同訓練과 強化訓練으로 區分하여 進行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귀측도 여기에 同意를 하시는 것

인지?

만약에 表現은 귀측은 지난번에 『共同訓練과 綜合訓練으로 區分하여 實施한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예컨대 이러한 立場이시라면 귀측의 案을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하나 주시며는 比較를 하면서 表現問題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이렇게 넘어가자고 合意를 한다든가 하는데 편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 주시지요.

北(장웅) : 우리는 4次 本會談때 내용은 10개 항목을 정리한거 그 내용에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南(任台淳) : 4次 本會談때에 整理한 內容이다.

北(장웅) : 4次 本會談때 整理한 內容을 지금 귀측에서 이렇게 定立을 해놓고 대비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南(任台淳) : 그렇다면 選手選拔問題에 대해서라든가 구체항이 設定되지 않은 상태의 案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北(장웅) : 그때 내놓고 5次會談에서 우리가 同意를 했군.

南(任台淳) : 그러니까 귀측은 지금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은 選手選拔問題와 관련된 구체적인 項目은 누락이 되어 있는 그러한 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있고 또 우리항에 同意하셨으면서도 귀측의 표현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 이런 상태이거든요.

때문에 同意를 하셨고 異見이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注意를 알아야 되는데 예컨대 同意를 한 부분에 대해서 표현까지 동의를 한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하고,

또 異見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 부분에 대해서 귀측은 어떻게 表現하겠다고 하는 案이 우리한테는 없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側 案을 中心으로 討議를 하는 것에 동조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귀측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討議가 사실상 대체적인 立場은 알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討議가 進行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미리 案을 하나 주시는게 어려울것 아닐 것 같은데…….

北(장웅) : 이게 보며는 貴側에서 내놓은 대비표에도 이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1次 代表接觸에서 討議된 內容으로 보면 내용상 合意다 合意가 아니겠는가.

표현상 問題는 다음번 接觸에서 이걸 어떻게 일치시키겠는가 하고 내용상 合意를 우선 해나가야되지 않겠는가…….

南(任台淳) : 그러니까 표현과 內容과의 차이가 뭘겠습니까?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內容을 글짜로 나타내는게 표현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용상이다 하면 이런 書類를 놓고서 檢討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적어도 이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內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표현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귀측의 整理된 案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지 않으니까 귀측의 정확한 立場이 무엇인지 이걸 가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北(장웅) : 그러니까 10항까지 한번 意見交換을 하고 내용상 우리는 合意를 同意는 준거니까…….

南(任台淳) : 그러니까 우리側 案만 가지고 意見を 交換하자 이런 말씀인

가요?

北(장 응) : 우리가 이미 提案한 案도 왜 대비하는가?

내용상에서 큰 차이가 없지 않으나 우리 생각은 이겁니다. 실례를 들면  
임선생 말씀을 했는데 共同訓練과 合同訓練의 차이가 무어 있겠습니까?

南(任台淳) :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合同訓練과 같은 概念이다 이런 말씀  
이죠?

北(장 응) : 概念이 같죠.

北(김세진) : 그 뜻은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일치된다 이렇게 우리  
가 얘기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南(任台淳) : 그러면 같은데 合同訓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同意를 안하시  
는거죠. 지금?

北(장 응) : 그러니까 그것은 合意書를 어떤 방식으로 採擇하느냐는 問題  
인데 예하면…….

南(朴秀蒼) : 우리가 合同訓練은 어떤거다, 貴側에서 얘기하는 共同訓練은  
어떤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죽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확실히 하자는 얘  
기입니다.

南(任台淳) : 이게 서두인데 이것 자체도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죠. 더군다나 實務者 接觸인데…….

北(장 응) : 그러니까 實務者 接觸인데 貴側에서는 合同訓練이라고 쓰고  
우리는 共同訓練이라고 쓰니까 앞으로 合意書 作成을 어떤 형식으로 하  
는가 거기에 관련되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예하면 貴측에서는 양궁이라 쓰고 우리는 활쏘기라 합니다.

南(任台淳) : 아니예요. 그 경우하고는 다르지요. 共同과 合同의 意味가

좀 단어 뜻이 다른 느낌이 있느냐…….

北(장 응) :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차이를…….

北(김세진) : 아니 그러면 거기서 무슨 共同訓練이라고 우리가 표현한거하고 거기서 合同訓練이라고 표현한데서 合同訓練이라는게 무슨 다르게 뭐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우리 綜合訓練이라고 표현한거 거기서는 強化訓練이라고 했는데 이 強化訓練이 무슨 內容이 다르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게 뭐 있어요?

南(曹英承) :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北(장 응) : 예, 曹先生님.

南(曹英承) : 뭐냐하면 원천적으로 서로 쓰는 用語가 습관상 또는 言語의 歷史上 어떻게 달라져 있느냐 하는 그것도 重要하지만 우선 形式的으로 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外交文書를 서로 合意를 해서 作成하는 경우에 반드시 들어가는 文句가 뭐냐하면 解釋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그만큼 表現에 있어서 重要性을 意味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2次實務代表接觸까지 7회에 흘러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側 案가지고 그냥 同意한다, 意見一致한다, 이걸 疑問있다 말만했지, 그 意見이 一致하지 않는다는 그 表現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用語가 서로 習慣上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具體的인 10個項까지의 記述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시한 合意書案하고 내놓은 그 外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점에서 벌써 오늘 實務代表接觸에 있어서도 하나의 흠이 되는 것은 事實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1次接觸했으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貴側나름대로의 쪽 적어서 왔으면 분명해지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合同訓練이다, 共同訓練 이렇게 하고 綜合訓練이다 強化訓練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넘어가자 하고, 그것을 다음에 合意書 쓸 때나 그때 한번 다시 討論하자 하는데, 만일 合同訓練과 共同訓練 사이에 그 意味가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여기에서 討論되어야 할 事項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점을 그러면 우리한테 다른점은 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案에 대해 同意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뜻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든지, 貴側이 분명히 이야기해주면 진행될거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北(장웅) : 그러니까 우리는 共同訓練과 合同訓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認定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綜合訓練과 強化訓練, 그래서 괄호안에다 우리가 아마 4次때 그쪽에 준 文件에 合意書草案에 綜合訓練, 共同訓練 괄호안에 合同訓練, 綜合訓練 괄호안에 強化訓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南(曹英承) : 뭐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南(朴秀蒼) : 장선생님! 그러니까 그쪽에서 意味하는 共同訓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訓練을 共同訓練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北(허혁필) :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合同訓練과 같은 것인데 體育常識적으로 合同訓練이나 共同訓練이나 같은 것인데 이제 세진代表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合同訓練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뜻이 있는가 같은 물음인데.

南(朴秀蒼) : 예, 그걸 제가 說明을 드리면 우리는 원래 제일 처음 생각은 合同訓練이라는 말은 비록 어떤 경기장, 우리가 平壤을 가는 平壤食口들이 서울에 오든, 예를 들어 蠶室올림픽메인스타디움에서 訓練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選手는 우리 選手끼리만 하고 北韓選手는 北韓選手끼리만 하고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北側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니 單一팀을 하자고 하는 마당에 너희들끼리하고 우리는 우리들끼리하고 할바에는 뭐하러 訓練을 한 군데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北側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共同訓練이라고 하는것은 각자가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때로는 별도로 할 때도 있지만 섞어서도 하고, 별도로도 하고 하는 것을 意味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合同訓練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意味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北(허혁필) :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北(김세진) : 朴先生 또 지금말요, 지금까지 우리가 1次會談부터 지금까지 일곱 차례 해오는 전과정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合同訓練이다, 共同訓練이다 하는 問題는 여러번 討議됐는데, 이때 이 問題討議할 적에 우리가 表現하는 共同訓練이다, 共同이라는거, 또 거기서 表現하는 合同이라는거 이말 자체가 같이 訓練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理解를 다 해왔는데 지금와서 또 어떤때는 합쳐서 하고, 어떤때에는 헤쳐져서 하고 이러니까 지금 또 와서말요, 지금까지 會談한 會議錄 다시 들춰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南(曹英承) :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왜 지금와서 또 그러느냐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되지.

北(김세진) : 그래서 訓練하는 方法問題인데, 訓練하는 方法問題 여기서 우리가 方法問題를 論議하는거는 이진 앞으로 實務일꾼들이 해야 할 문제들이고, 우리가 問題는 지금 이제 雙方方案들에서 合同訓練, 거기 말하는 데로, 合同訓練을 하고 또 그다음에 強化訓練을 한다.

또 우리가 말하는 共同訓練을 하고 綜合訓練을 한다 이런 訓練 과정을 거친다 하는건 意見一致가 됐고, 그런데 여기서 合同訓練 形式과 方法問題인데, 形式과 方法問題는 이 文章 그대로 合同이나 共同이나 뜻에서 차이가 있는것만 이야기하라 이거지?

우리 생각은 이 말뜻들이 다같이 한다는 걸로 이렇게 理解를 하는데 이런 理解하고 달리 생각하는거 있으면 거기서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南(朴秀蒼) : 지금 김대표께서 말씀하신걸로 한다 하면 우리와 다른거지.

北(김세진) : 거긴 달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南(朴秀蒼) : 訓練이라고 하는것은 그쪽의 共同訓練은 南과 北의 選手들이 같이 섞어서 訓練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合同訓練의 意味는 섞어서 할 때도 있지만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할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北(장웅) : 감독의 소관에 속하는 일이 아닙니까?

南(朴秀蒼) : 그러니까 어느때는 섞어서 하고 어느때는 흩어져서 할 것이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問題는 共同委員會에서 할 일이지마는 여기서 訓練의 方法을 어떤 式으로 할 것이냐 하는 큰 윤곽 자체는 우리

가 이 本會談에서 定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北(장 웅) : 그러니까 共同訓練, 그쪽에서 말하는 合同訓練이거면 되지 않아요?

南(朴秀蒼) : 아니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意味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것을 分明히 하지 않으면 共同이라는 말과 合同이라는 말 자체는 다릅니다, 뜻이.

北(김세진) : 그러하면 朴동무, 朴秀蒼先生(雙方웃음) 表現法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表現法은 그러하면 合同이라 하지말고, 거기서 말하는 合同이라 하지말고, 訓練은 北과 南이 합쳐서도 할 수 있고 갈라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명백하지 여기에다 合同이라 해놓고 解釋은 지금에 와서 이거 뭐 같이도 할 수 있고 헤어져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文章, 合同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소 朝鮮말 表記에서.

南(任台淳) : 그러면 두가지 方法이 있다는 것을 反對하시는 立場이라고…….

北(김세진) : 아니 反對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쪽 討論해오면서 合同訓練이란 말 그대로, 같이 北과 南의 選手들이 訓練을 한다는걸 意味한다. 이걸 수차 強調해왔는데 지금까지, 이제와서 난 거기서 제기를 하더라니 合同이라는 거하고 우리 共同이라는거 하고 그 뜻이 같은가 하는걸 提起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 무슨 뜻이 다른게 있나 우린 뜻이 같기 때문에 同意를 했는데 거기서 提起를 하는 뭐 內容이 다르게 있다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지는…….

南(朴秀蒼) : 분명히 뜻이 다른거라.

北(김세진) : 그렇게 했으면 처음에 文章 밝힐때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明白하게 밝혀주었어야지.

南(朴秀蒼)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合同이라는 말과 共同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다 이겁니다.

南(曹英承) :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南(朴秀蒼) : 뜻이 다른거야, 合同이란 말과 共同이란 말은.

北(장웅) : 제가 좀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쓰는 共同訓練이란 말하고 合同訓練이란 말, 貴側에서 쓰고 있는 強化訓練이라는 말하고 綜合訓練이라는 말, 이것이 같습니다. 결국은 난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듭시다. 간단히 實例를 들면 축구팀 實例를 들면 축구팀이 이제 베이징에 간다, 베이징 競技大會에 간다하면 우리나라 그쪽이나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團體 選手를 몇이, 우리 「2.8」選手 몇명, 「平壤市구락부」選手 몇명, 「기관차구락부」選手 몇명 뽑죠? 뽑습니다. 이것이 꼭 거기에 갈 選手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하면 권투選手 12個級에서 간다하는 경우에는 12名만을 뽑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투協會가 결심을 한다면 48名을 뽑는단 말입니다. 한級에 너댓명씩.

이거 뽑아서 모여가지고 하는 訓練, 그저 共同訓練, 合同訓練으로 되지 않습니다니까? 그렇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選拔競技를 한단 말입니다. 選拔競技를 해서 마지막으로 12名이 남습니다. 권투 12個級에서 한級에 한名씩, 12名이 남아서

마지막 最終訓練하는 것, 이걸 우리 綜合訓練이라 하는데, 그쪽에선 強化訓練이라 하고 이런 뜻으로 나는 理解를 하는 있는데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南(曹英承): 그런데 그거 말이죠. 내 말씀 들어보세요.

차이가 없다 이렇게 結論을 지울라고 하니깐.

우리는 合同訓練이라 하고 貴側에서는 共同訓練이라고 하는 用語를 달리 하기 때문에 과연 貴側이 말하는 그런 用語의 內容과, 포함하고 있는 內容과 우리가 쓰는 用語의 內容이 같으나 안 같으나 하는 問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분명히 아까 김세진대표가 말씀하시것 보면 분명히 다른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점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뭐냐하면 우리가 合同訓練이라고 할 때에는 흔히 쓰는 用語인데 그 合同이라는 意味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貴側 축구팀 하고 우리 축구팀 하고 20名, 20名씩 한데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平壤大競技場에서 練習을 한다, 訓練을 한다할 때 축구감독이나 코치들이 이걸 막 뒤섞어가지고 같이 한번해보자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코치대로 貴側은 貴側 코치대로 따로 서로 봐가면 각각 訓練方法이 따로 있으면 그 訓練方法대로 한 場所에서 같이하는 이런것도 可能하다 하는 意味가 合同訓練의 內容입니다.

北(허혁필):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다 따로 하자는 겁니까?

南(曹英承): 그리고 또 合同訓練의 內容中에서는 우리가 合同訓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독과 코치의 주관하에 딴 사람 아무도 參席시키지 않고 하는 訓練만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관중도 넣어 놓고 할 수도 있다하는 그런 公開의 概念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만일 우리 合同訓練이라고 쓸때 우리의 用語의 內容대로 여러분들이 同意할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자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合同訓練이라고 할 때 품고 있는 內容이 分明히 다를 때에는 이 用語의 定義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合同訓練이라고 表現하고 貴側은 共同訓練이라고 表現하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意味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들춰서 왜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비록 過去에 한번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確認하라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北(장 응) : 그런데 우리가 먼저 1次代表接觸에서 貴側에서 提案한 거기에 內容上 合意들을 했는데 이거 問題가 될 수가 없는 問題인데 오늘 갑자기, 뭐인가하면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본래 내놓은 案은 共同訓練段階에서 種目別 責任指導員, 監督은 訓練이 進行되는 側에서 말한다. 우리 이렇게 내놨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貴側의 案에 同意했는데 결국은 그 뒤에 問題가 다 갈리는 겁니다.

이제 共同訓練, 우리가 말하는 共同訓練은 또는 그쪽의 合同訓練은 雙方 監督 및 코치가 하되, 雙方責任指導員 및 指導員들이 合意하여 실시하되 相對方의 固有한 訓練方法을 존중한다. 이게 우리가 이에 內容上 同意를 준겁니다. 그렇게 큰 問題가 없지 않은가.

南(任台淳) : 그래서 내가 整理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合同訓練과 共同訓練에 貴側의 이야기로는 뭐 다른 뜻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側으로서도 貴側이 다른 뜻이 없다 하게 되면 뭐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討議된 內容을 듣고 느끼는 것은 이러한 整理가 內的으로 필요하겠다는 느낌입니다. 뭐냐하면 訓練이라는 것은 선발전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選拔戰 方法, 選拔戰 形式이라고 해도 좋고, 선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로서는 선발전 만큼은 南北選手間에 公開裡에 實施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확고하게 표명된 입장인데 그 선발전은 合同訓練의 마지막단계에서 實施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合同訓練의 마지막 段階에서 南北選手間에 公開裡에 選拔戰을 實施한다』하는 內容을 包含을 하는 概念으로서 이 合同訓練이라는 用語를 쓰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아 할 것 같으면 用語統一의 문제는 異意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用語가 달리, 다른 用語를 쓰는 이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異見이 있기 때문에 다른 用語가 혹시 쓰임으로 해가지고 그런 誤解의 소지를 낳게 된다면 역시 用語도 統一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北(장 응) : 그 任先生 얘기를 듣고 보면 또 새 問題가 나오는구만. 그러니까 選手選拔 競技를 公開的으로 한다는 걸 前提로 한 條件에서 이 合同訓練이란 용어다 이 뜻인데, 이게 選手選拔 問題와는…….

南(朴秀蒼) : 公開도, 때로는 公開도 하고…….

南(任台淳) : 그러니까 包括的인 概念으로 하자 이거죠. 어느걸 排除, 前提

라는건 우리는 包括的인 概念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貴側에서 어느 部分을 除外시킨 概念으로 본다면 안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北(장 웅) :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5項 우리는 訓練, 貴側에선 選手訓練, 훈련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훈련은 훈련이다. 바로 첫번째 第1次 接觸때 選拔戰은 選拔戰이다. 貴側에서 아주 강력히 主張을 했습니다. 選拔戰에 訓練競技가 包含되느냐 안되느냐. 이걸 論議가 되었고 되었는데 이것 또 이제 지금에와서 任先生 얘기를 하는 것 보면 그 選手選拔戰 競技와 이 合同訓練이란 말이 連累되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南(任台淳) : 그럼 連累가 안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北(장 웅) : 그러니까 訓練은 訓練이고, 選拔戰 競技는 選拔戰 競技라는 것으로 첫번째에 1次 代表接觸에서 서로 確認하지 않았습니까?

南(任台淳) : 그러면 그 訓練段階가 끝난 뒤에 選拔戰을 하는건 아니죠?

北(장 웅) : 마지막 段階에서 訓練을 하든 選拔戰을 하든 하죠.

南(任台淳) : 글썄 마지막 段階라고 하는 이야기를 合同訓練의 마지막 段階 아십니까? 그러니까 合同訓練의 內容이 바로 그 選拔戰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段階의 內容이.

北(김세진) : 그러니까 訓練問題는 項目이 따로 있고, 競技問題는 또 따로 있으니까 다른 문제로 봐야지, 자꾸 거기 다 混合해 놓으면 복잡하단 말이요.

南(任台淳) :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內容과 外皮의 問題다.

北(장 웅) : 지금 選手選拔問題에다가 이걸 지금 또 붙이는데 選手選拔問題하고 獰연하게 다른 項目입니다.



南(朴秀蒼) :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이야기 하지 맙시다, 복잡하게.

共同訓練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合同訓練 사이에는 지금 분명한 差異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각자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北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 하는 共同訓練의 의미는 南北選手가 하여튼 섞어서 訓練하는 것이다』이 말씀 아니십니까?

北(장 웅) : 아 그거야, 그 문제야 監督이나 共同委員會에 가서 解決돼야 될 문제지, 여기에 합동훈련을 『合同訓練은 따로따로 하는 것과 합쳐서 하는 것이 合同訓練이다』 이렇게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南(朴秀蒼) : 그걸 여기서 바로 잡아 주어가지고 共同委員會에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몇월 몇일날, 어디에서 南과 北의 選手가 訓練을 하는데 그 訓練은 섞어서 한다, 그런 問題를 共同委員會에서 맡은 것이지…….

北(김세진) : 그러니까 朴代表 이제 이야기 하는 거는 訓練過程에는 그 같이 합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헤어져서도 할 수 있겠다, 이런 意味에서 뜻을 같이 해야 되겠다.

南(朴秀蒼) : 「있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합동훈련이란게.

南(任台淳) : 우리는 다 包括되는 내용이다. 그동안에 그렇게 토의가 돼있는데 아닌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상하다구요.

北(허혁필) : 누가 먼저 말했어요? 그쪽에서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北(장 웅) : 本 會談에서 우리 단장동지도 얘기를 했어요. 共同訓練期間에는 합쳐서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고, 이미 된건데.

그거 참 오늘 이상하구만.

南(任台淳): 그래서 또 내 이야기가 그저 지난번 異見을 提起하셨던, 지난번 提起하셨던 選拔戰 形式에 대해서 貴側의 意見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자꾸 提起 強調한게 그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貴側이 만일 選拔戰을 南北選手間에 公開裡에 한다는 것만 貴側이 同意하신다면 이런 問題를 사실 討議하는데 별로 물어볼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서 일단 「브레이크」 뭐 制動이 걸려 있는 狀態에서 그 外皮를 이루는 이 訓練 問題를 이야기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北(김세진): 그래서 이 文章을 그대로 보면 그저 같이 訓練하고 서로 합해서 이제 訓練한다는 기본뜻인데, 具體的 形式에 들어가서는 必要에 따라서 이제 訓練內容도 여러가지가 있으니까는.

또 選手도 蹴球를 하면 40名이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51名, 어떤 때에는 防禦守, 어떤 때에는 攻擊守 이렇게 헤쳐서 訓練課題를 遂行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側面에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처럼 그렇게 갈라서 北과 南이 갈라서도 이렇게 訓練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側面에서 내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北(장웅): 이거 뭐 다른 意見 없어요.

南(朴秀蒼): 그 數를 만약에 본다면은 섞어서 했을 때의 數와 별도로 따로 分離해서 했을 때의 訓練의 數를 比較한다면은 그것은 반반 程度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北(장웅) : 그거야 이제…….

北(김세진) : 그건 코치들이 감독들이 댄 데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상의해서…….

南(任台淳) : 장선생! 제가 하나 提案을 해볼까요? 이거 지금 用語에 대해서는 貴側이 사실 다른 뜻이 없다고 자꾸 強調를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제가 듣기에는 南北國會會談같은 경우를 보며는 合同會議다 그래 가지고 用語도 合同會議란 用語를 이렇게 使用하고 그러던데, 用語를 南과 北도 用語도 같은 의미라면 統一을 시키는데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合同訓練과 強化訓練으로 區分하여 進行한다』 이렇게 해 버리죠 뭐.

北(김세진) : 아니, 그 用語問題 이미 討論된건데 後에 다시 整理하자고 말이에요.

北(장웅) : 그 用語問題는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合意書 草案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겠는가 하는데 관계되는 문제인데, 用語問題는 그래요 그쪽에 저 國語辭典委員會 같은 것 있습니까? 있지요? 그런거. 우리는 國語辭典委員會가 있습니다. 國語辭典委員會에서 定立한 用語이기 때문에 이거 용어문제에서는 이제 合意書草案을 어떻게 作成하는가와 關係되는 문제니까 우리는 方途가 있습니다.

南(任台淳) : 아니 國會會談 때는 合同會議라고 하던데…….

北(김세진) : 그건 形式自體가 다르지 않아요?

北(장웅) : 그건 形式이 다르죠.

北(허혁필) : 文章定立은 後에 하자 했으니까 뭐 內容만 따지고 그냥, 예.

南(任台淳) : 그러면 疑問事項, 疑問이 남는 상태가 되는데.

北(허혁필) : 그건 「相互」란거와 「互相」하는 거와 다름 없습니다.

南(朴秀蒼) : 그런 식으로 남겨 놓고 가며는 의문이 무슨 그분들한테 諮問을 구하지 않아도 나 정도의 常識만 갖아도 「共同」이란 말과 「合同」이란 말을 여기서 자주 시간가고 해서 그렇지만 「共同」이란 말과 「合同」이란 말이 어떻게 다르냐 하고 일일이 예를 들어가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

北(허혁필) : 그것 이제 論議해서 意見一致를 봤는데 必要하면 거기서는 무언가 하려는 「合同」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또 「共同」이라고 表現하고 뜻이 같으면야 方法이야 서로 見解差異를 좁혀서 할 수 있는 問題지 말이에요.

南(朴秀蒼) : 그러니까 제가 說明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뜻이 아니다 하려는 南과 北間에 정말 言語의 差異가 생긴거야. 엄청나게 차이가 생긴거야.

北(김세진) : 그런 문제를 內容에서 다르게 있는가 하는 것을 討論하지 않소? 그래서 토론해서 대체 그 뜻에는 다 이런 뜻이다 해서 같이 見解의 一致를 봤으니까 …….

南(任台淳) : 答辯을 좀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北(장웅) : 見解에서는 같습니다.

南(任台淳) : 김대표가 答辯을 좀 이상하게 했다구. 섞어서만 한다는 식으로 …….

北(장웅) : 아니 그건 섞어서 할 수도 있고 갈라서 할 수도 있고.

南(朴秀蒼) : 이 말은 솔직히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자꾸 저 장선생

님 말씀은 너희들은 양궁이라고 하고 우리는 활쏘기라고 하지 않느냐,  
그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야 활쏘기라고 하는 것하고 양궁이라고하  
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

北(김세진) : 그래서 이런 實務的 問題는 나는 訓練場에서 내내 生活을  
한 사람인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實踐過程에는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다. 그건 우리가 理解한다, 그런 側面은 양궁하고 활쏘기가 차이나는 것  
처럼 같은 뜻이다.

南(朴秀蒼) : 나중에 解釋上에 差異가 없어야 되고…….

北(장 웅) : 예. 차이 없습니다.

南(朴秀蒼) : 없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했을 때 「그  
래 니들의 생각은 그 뜻이다」 이렇게 同意해야 됩니다.

北(장 웅) : 그저 같다. 合同訓練, 共同訓練 같고 強化訓練, 綜合訓練 같  
다.

南(朴秀蒼) : 우리의 무슨 숨은 뜻은 뜻이 있는게 아니고, 우리 절대 그  
런건 없고.

北(장 웅) : 자꾸 그 疑心하지 말라구요.

北(허혁필) : 하여간 疑心이…….

南(朴秀蒼) : 이거야 疑心 안할 수가 있나.

南(任台淳) : 자, 그러면 제가 整理합니다. 5. 「選手訓練」項에 「가」項은  
『訓練은 合同訓練과 強化訓練으로 구분하여 進行한다』 우리側の 이 案  
에 貴側은 아무런 異意가 없이 同意를 했습니다.

北(장 웅) : 예. 表現上에선 각기 便利한 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다  
음에…….

南(任台淳): 다음에 넘어가지요.

北(장 응): 두번째, 다른 異意가 없습니다.

南(任台淳): 한번 읽어 보아야 되겠지요.

北(장 응): 그쪽에서 읽으십시오.

南(任台淳): 「나」 『合同訓練에 參加할 選手 및 任員은 각기 決定하며 그 人員數는 第11回 北京 아시아 競技大會 組織委員會가 정하게 될 競技 參加 定員數로 하되 種目別 特性에 따라 協議・調整할 수 있다』 이걸 아무런 異의가 없으시겠지요.

北(장 응): 예.

南(任台淳): 그럼 여기에 대해서 同意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選手訓練의 「다」項 『合同訓練은 雙方 監督 및 코치가 合意하여 實施하되 相對方의 固有한 訓練方法을 尊重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同意하신다고 하셨는데 더 말씀하실게 있으십니까?

北(장 응): 거기에서 우리 案은 본래 『共同訓練 段階에서 種目別 責任指導員은 訓練이 進行되는 側에서 맡는다』 했는데 貴側의 案에 同意를 합니다.

南(任台淳): 同意를 하는 것이죠.

北(장 응): 內容上 同意니까.

南(任台淳): 적어도 『合同訓練의 實施方法에 있어서도 相對方의 固有한 訓練方法을 尊重한다』 이걸 뭐…….

北(장 응): 그걸 의례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세번째 問題에서 『共同訓練期間 中 選手를 交替할 수 있다』 이걸 다른 意見 없습니다.

南(任台淳): 「라」項 『訓練期間中 參加選手는 交替할 수 있다』 이것은

自己側 選手는 自己側이 決定을 하는 것이니까, 自己側 選手는 自己側이 交替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北(장 응) : 예.

南(朴秀蒼) : 相對方 選手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는 그런 뜻이다, 이겁니다.

南(任台淳) : 自己側 選手는 自己側이 決定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北(장 응) : 그건 의례히 그렇게 된거고. 그 다음에 共同訓練은 北南唯一 팀 共同委員會가 나온 後 한달안으로 시작한다.

南(任台淳) : 「마」項 『合同訓練은 南北單一팀 共同委員會가 發足한 後 1 個月 이내에 시작한다』 이걸 表現을 우리가 貴側案을 受容해 가지고 表記를 한 겁니다.

北(장 응) : 그 다음에 『綜合訓練은 選手團이 構成된 때로부터 大會出戰時까지 實施한다』 이거 사실은 필요는 없는 案인데, 貴側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意見 없습니다.

南(任台淳) : 「바」項 『強化訓練은 選手團이 構成된 때로부터 大會出戰時까지 實施한다』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그 다음에 「사」項이지요. 「사」項은 우리側案에 貴側은 同意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北(장 응) : 그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南(任台淳) : 예. 『合同訓練 및 強化訓練은 種目別로 南北을 相互往來하면서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第3의 場所・施設을 利用할 수 있다』 이겁니다. 同意하시는 거지요?

北(장 응) : 예,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의 案은 『共同訓練과 綜合訓練은

北과 南이 既存施設을 利用하도록 하며 必要에 따라 第3의 施設을 利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南(任台淳) : 그래서 內容이 같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들이 問題입니다. 貴側 案이 變動이 없다고 하시는데.

北(장 웅) : 同意 했습니다. 이미 먼저번에 동의했는데 …….

南(任台淳) : 우리側에 同意를 했으니까 이 案과 같다고 하려는, 이 內容을 表記를 이쪽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여기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적어도 『南北을 相互往來하면서 實施한다』는 表記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同意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表現이 들어가는데 同意를 하시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北(장 웅) : 전번 接觸에서 이미 同意했잖아요.

南(任台淳) : 이거야 貴側에서도 同意를 못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北(김세진) : 여기서 文案까지 다 整理를 하자는 겁니까?

南(任台淳) : 아니죠. 이거야 文案이 아니고 內容이죠.

北(김세진) : 내용상 그거 같은 것 같은데 …….

南(任台淳) : 內容이 重要的 內容 아닙니까? 『南北을 왕래하면서』라는 말을 하느냐 안하느냐 중요하죠. 南에서만 하느냐, 北에서만 하느냐 뭐 이렇게 할 수, 나누어서만 하느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

北(장 웅) : 共同訓練이야, 共同訓練이 되면 아무래도 오고 가고 하면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南(任台淳) : 글썽요. 당연한 것을 집어넣자, 이런 얘기입니다.

北(장 웅) : 그 다음에 『訓練과 關聯한 모든 條件과 便宜는 訓練場所를



提供하는 側에서 保障한다.』 우리 입장인데 .

南(任台淳) : 우리側 案에 同意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訓練과 관련한 모든 便宜는 訓練場所를 提供하는 側에서 保障한다.』

北(장 응) : 이견 글자도 똑 같습니다. 글자도 같아요.

南(任台淳) : 그런데 條件이란 말이 이견 어떻게 들어갔어요? 條件이란 말을 貴側에서는 꼭 쓰셔야 되겠습니까?

北(장 응) : 貴側 案대로 합시다.

南(任台淳) : 우리 案대로 하는 거죠. 條件이라는 말은 빼고 그리고…….

北(장 응) : 訓練條件과 便宜, 便宜 여기 理解上 差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南(任台淳) : 그런데 貴側은 條件이란 말을 여러군데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 條件이란 말이 그렇게 特殊한 境遇가 아니면 안쓰여 집니다.

北(장 응) : 상당히 힘든 모양인데…….

南(任台淳) : 條件이란 말 우리가 털어버리기로 했으니까, 이견 털어버리기로 合意를 하고.

南(朴秀蒼) : 條件이란 말을 없애버립시다. 나중에 시비거리가 많아요.

北(장 응) : 그 다음에 『訓練에 관한 기타 細部事項은 北南唯一팀共同委員會에서 協議・決定한다.』 이견 내용이 같습니다.

南(任台淳) : 『기타 細部事項은 單一팀共同推進機構에서 協議・決定한다.』 여기에 대해서 「자」항은 異意없이 意見이 一致된 겁니다.

北(장 응) : 6번째 입니다. 여섯번째군? 「選手團構成」.

南(任台淳) : 예. 제 6항 「선수단구성」.

北(장 응) : 우리 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第 11次 아시아 競技大會

에 參加할 最終 選手團 構成은 1990년 6월 22일 전으로 끝낸다.』그러니까 다른 意見이 없는 것 같습니다.

南(任台淳) : 6번 「선수단구성」의 「가」항은 『제 11회 북경아시아競技大會에 참가할 선수단의 구성은 豫備申請마감일인 1990년 6월 22일 전으로 끝낸다』 이걸 이의가 없죠?

다음 項에 대해서도 貴側은 意見이 一致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로서는 조금 더 確認할 部分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北(장 응) : 任先生, 그 確認할 部分만 얘기하십시오.

南(任台淳) : 「나」항 『선수 및 임원 구성은 OCA 헌장 및 해당 국제 및 아시아競技聯盟 규칙과 제 11회 北京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의 關係規定에 따른다』 어떻습니까?

貴側은 보며는 기본적으로 OCA 헌장만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해당 국제 및 아시아競技聯盟 規則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組織委員會의 規定에 대해서도 技術規定, 一般規定等 關係規定은 다 망라해서 거기에 따른다. 이렇게 包括하자는 것이니까 여기에 異意를 提起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北(장 응) : 우리側 案과 貴側 案이 그저 大同小異한데 意見이 相馳되는 게 없습니다.

南(任台淳) : 相馳되는게 없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貴側案에 貴側은 이런 내용을 삽입하고 그러니까 국제 및 아시아競技聯盟 規則에 대한 내용을 貴側案에도 插入하고 또 技術規定이라고 制限하는 것 보다도 關係規定으로 包括적인 概念으로 집어넣자 하는 뜻인데 同意하시는 거죠.

北(장 응) : 그저 이소리나 저소리나 같은데 技術規定이 基礎이니까, 이걸

받으셨군? 「The technical handbook」 거기에 그 條項에 準하는 것이니까.

南(曹英承) : 일반규정에 또 따로 보니까…….

南(任台淳) : 아, 받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體育技術者들인데, 이거 분명하게 다 包括해 놓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안에 동의를 하시는거죠?

北(장 응) : 예. 同意를 했습니다.

南(任台淳) : 다음에 다음 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죠. 「다」항, 「선수단 구성」의 「다」항.

北(장 응) : 우리 案입니다. 우리 案은 『유일팀 단장은 공동단장제로 한다』 이것이 우리 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貴側의 案과 여기서 意見이 相馳되는데 內容에서 根本相馳되는 問題의 하나인데 唯一팀 團長을 共同團長制로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은 그저 우선 첫째로, 北南唯一팀 構成 本然의 目的에 共同團長制가 맞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北과 南이 오랜기간 分裂되어 있고 민족이 分裂돼서 그 半世期間 分裂된 狀態에 있고 이런데서 우리가 唯一팀을 하자니까 雙方의 公平性을 保障하자면 共同團長制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의견입니다.

둘째는 만일 北과 南의 思想과 制度의 差異가 믿음의 차이가 없이 地域이 分裂되어 있는 상태에서 唯一팀을 한다고 하면 뭐 이것이 별 問題로 提起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세월 이렇게 分裂되어 있었기 때문에 團長問題에 있어서는 共同團長制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歴史的으로 볼 때 北과 南은 다른 分野에서도 「共同委員長制」를 했습니다. 「北南朝鮮委員會」라든가, 「北南經濟協調委員會」라든가 다 공동단장제를 하고 있고 이런 선례를 따르는 것이 좋다. 體育會談이 물론 格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보다 높은 次元에서 지금 解決方式을 찾은 것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넷째로는 唯一팀共同委員會와 共同事務局도 雙方の 의견이 다 일치하는데 여기에도 각기 共同委員長이 나오게 되어 있고 또 共同事務局도 貴側에서도 공동위원장·공동사무국장으로서 貴側에서 내놓은 案에도 있다는 거, 이런 네댓가지 意見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合意를 했는데 選手選拔에서 均衡을 잃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이에 合意를 했습니다. 合意를 했는데 貴側의 案으로 보게되면 『選手가 많은 쪽에서 團長을 하고 적은 쪽에서 副團長을 내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우리가 合意한 選手의 均衡을 잃지 않도록 選手選拔을 하자. 이런 方向에서 하자. 이미 合意하고 넘어온 內容을 다시 또 다르게 變動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유들로 해서 共同團長制가 옳다고 우리들은 봅니다.

南(任台淳):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側의 案을 볼 것 같으려는 選手團構成의 「다」項입니다. 『團長은 選拔된 選手의 數가 많은 側에서 말고 副團長은 選手의 數가 적은 側에서 맡는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貴側은 共同團長制로 해야되겠다는 意見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 選手團의 團長은 적어도 몸, 身體로 말할 것 같으면 머리부분에 해당되는 아주 重要的 部分이다.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單一팀이라고 하는 몸통,單一팀이라고 하는게 우리가 두개의 몸뚱아리가 아니고 하나, 한덩어리로 만들어놓자고 하는 것이單一팀인데 단일팀에다가 머리가 두개가 달린, 뭐 우리 傳說속이나 나오듯이 뱀의 몸통은 하나인 머리가 두개 달려놓고나머는 이게 어디로 가야될 것인지 항상 問題가 될 수 밖에 없듯이 적어도 團長만큼은 하나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基本的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하나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單一팀을 構成을 했던 前例가 있죠. 獨逸의 경우가 이제 東·西獨이 아시다시피 56年 「멜버른 대회」 그리고 물론 「코르티나·담페쵸 동계대회」도 나갔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60년의 「로마대회」, 64년의 「동경올림픽대회」등 세차례單一팀을 構成을 했었는데 첫번째의 경우는 團長이 하나였어요. 하나였다가 두번째 「런던」에 가면서 共同團長制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 머리통이 둘이다 보니까 말썽이 많았다 이얘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單一團長制로 되돌아 갔는데 이 團長을 뭐 어느쪽에서 團長을 말느냐하는 것은 만약에 중요한 問題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어느쪽에서 말든 團長은 하나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올림픽憲章上에도 團長이라고 하는 건 團長은 하나로 두도록 돼있어요.

내 이 憲章도 사실 들고왔는데 오늘 憲章上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OCA 憲章도 보며는 3條를 볼것 같으며는 올림픽憲章을 準用을 하도록 그렇게 規定을 하고 있습니다. OCA 현장 가지고 오셨죠? 그래 우리가

競技大會를 하는데…….

北(장웅) : 任先生! OCA 현장 다 있습니다.

南(任台淳) :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아시기때문에 이걸 들쳐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겠는데 이제 이렇게 보며는 결국 OCA 憲章의 趣旨로 보나 올림픽憲章의 취지로 보나 우리가 團長은 한사람이 나가야되겠다 하는 問題죠.

그리고 뭐 또 더 얘기를 한다며는 團長이 둘이 나가서 예컨대 單一選手團을 代表해가지고 어딜 나가야되겠다. 또 무슨 會議, 儀禮式에 참석해야 되겠다. 무슨 會議에 참석해야 되겠다. 항상 머리가 두개가 돼가지고 우리는 둘이 나갈수 밖에 없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이제 역시 實質的인 面을 고려하더라도 한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장선생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뭐 調節委員會 같은 경우도 共同委員長이 둘이었지 않은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그거야 南과 北이 協議를 하는 會議體니까 그럼 둘이 돼야죠. 그러나 이건 單一팀을 構成하기 위해 추진하기 위한거는 우리는 共同으로 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單一팀推進共同委員會는 南과 北이 共同委員長을 각기 하나씩 두고 또 共同事務局도 또 그 밑에서 執行을 하도록 서울과 평양에 두고 이러한 생각인데, 單一팀의 경우는 하나의 選手團이 나가는 問題인데 그렇다며는 共同團長이 따로따로 있으면 選手들도 결국은 두조각이 나고 한 방안에만 들어가 있는 그런 形態가 單一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結論이 나옵니다.

그래서 調節委員會와 비교할 성격의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共同委員會 말씀도 하셨는데 共同委員會는 이것이 構成・推進을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異見이 있다거나 할 때에는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協議할 수 있는 通路가 얼마든지 있는데 單一팀의 몸체 자체를 머리를 돌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尙當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均衡問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런것 아닙니까? 적어도 選手를 選拔하는건 最優秀選手를 爲主로 해서 選拔을 하는거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南北間에 가능한한 均衡을 현저하게 잃지 않도록 우리가 그야말로 和解的인 次元에서 問題를, 配慮를 相互間에 하며는 되겠다.

이렇게 볼 것같으며는 이것은 적어도 選手選拔의 原則에서도 맞는다. 왜냐하면 最優秀選手를 爲主로 해서 選拔한다는 根本原則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제 副團長은 또 相對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均衡의 原則에도 맞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며는 그야말로 公平할 뿐만아니라 가장 實効性이 있고 또 그야말로 國際社會에서도 單一팀이 擧揚하는데 効率的인 이러한 方法이 團長과 副團長制를 明白하게 해두는 方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貴側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런 部分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選手選拔 原則의 精神에서 보나 뭘로 보나 여기에 대해서는 異意를 提起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北(장웅) : 허대표동지 뭐 말씀할 게 있으면, 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말씀하십시오.

北(허혁필) : 이거 이제 任代表도 얘기를 했는데 唯一팀의 團長問題가 重要합니다. 團長問題가 重要한데 이 團長問題를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 이걸 한쪽에서 나서 이제 한사람이 하는가 둘이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로 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兩側에서 한명씩 나와서 하나의 共同團長을 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있는데 사람이 둘이라 해서 각각 둘이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算數적으로 보며는 두명인 것이 사실이지만은 兩側에서 각각 나와서 共同的 團長, 이 共同的 團長하면 큰 意味에서 볼때 하나의 團長이나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唯一팀을 構成하는 趣旨를 볼때에도 지금 北과 南으로 갈라져 있는 狀態에서 唯一팀을 만들어서 和解를 하고 團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統一에 寄與하자는 이런 立場인데, 公正性の 견지에서 볼때도 어느 한쪽에서만 나온다면 이 公正性を 保障할 수 있겠는가?

이제 任代表先生은 團長이 이쪽에서 나오고 그 대신에 다른 한쪽에서 나오면 公正性を 기한다. 이건 公正性の 견지에서 볼때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選手團構成은 우리가 볼때에도 北과 南에서 各各 이제 北의 選手로 들어가고 南의 選手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두측에서 나와서 하나의 選手團을 만들었는데 團長이 어느 한쪽에서 나와서 한쪽만 代辯한다면 이건 公正性の 견지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唯一팀을 構成하는데서 맨 처음부터 제일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立場을 지키는 것이 가장 重要的 問題로써 論議가 되어 있는데, 選手를 構成하는 것도 되도록 公正하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選手도 물론 부득이한 實務的인 側面에서 약간의 이런 差異가 있을 수 있겠다. 앞뒤에서. 그래서 되도록 가능한한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며는 약간의 選手 差異로 해서 어느 한쪽에서만 團長이 나오게 된다면 다른 團長이 나오지 않는 側의 選手들의 기분상태는 어떻겠는가. 이런 側面도 이제 考慮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實踐的인 見地에서 보더라도 選手團 構成에서 되도록 均衡을 保障하는 이런 原則인데 이런 의미에서 볼때는 이 構成에서 均衡을 保障하는 이런 側面, 이 構成에서는 和解의 境地에서 構成을 保障하자고 하면서 團長은 굳이 對決을 해서 한쪽에서 내자. 이렇게 하며는 우리가 唯一팀을 構成하는 趣旨・堅持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南(曹英承) : 장웅대표와 허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貴側과 우리側 사이에 상당한 根本的인 差異가 있구나 하는 것을 直感を 하게 됩니다. 그래서 非公開고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우선 單一팀 構成하려고 하는 趣旨로 보나 또 思想과 制度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그런 側面에서 봐서 團長이 한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또 均衡을 기왕에 維持하기로 되어 있기때문에 選手가 많은 측에서 말한다 하는 論理가 맞지 않다 하는등의 이야기, 그리고 内部的으로 이미 우리側에서 「共同委員長」, 「共同事務局」하는 用語를 받아 들였으니까 이게 말이 이렇지, 그 뒤에 解釋되어야 할 숨어있는 그 意味는 너무 너무 差異가 크다하는 것을 내가 느꼈다 이겁니다.

우선 하나 하나 이야기를 해 보려는 單一팀을 構成하자고 하는 趣旨가  
뭐냐하는 根本問題에 差異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單一팀을 構成하자고  
하는 그런 趣旨와 이 目的 그리고 基本精神이 어디 있느냐 하려는 南  
北和解에 寄與하고 그것이 나아가서 우리의 祖國平和統一에 寄與하자고  
하는 그 崇高한 精神, 이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만났으려는 그 다음에 이 길을 追求해 가는  
基本精神이 무어냐하는 것은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2次的으로 그것은  
뭐냐하려는 가장 스포츠精神에 맞고 스포츠原則에 맞도록 우리가 모든  
問題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基本精神이다 이렇게 보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며는 國內內部에서 存在하는 그런 팀이 아니라 南北을 총괄하는  
그런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外國에 代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代表시키  
려고 하는데 그것은 南北和解가 어느정도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側面에서나 스포츠의 技術側面에서 두사람이 責任者로 나선다 하는 것은  
도저히 利解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오히려 단일팀 構成趣旨나 思想과  
制度가 달리하는 그런 기초에서 보아서 오히려 共同團長制가 돼야한다고  
解釋하는 貴側の 意見이 너무나 우리하고 差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  
선 느꼈고 그 또 均衡維持 問題입니다.

均衡은 이미 維持하기로 돼있는데 왜 選手가 많은 쪽에서 共同團長  
을 選拔한다는 것은 그 趣旨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분명  
히 選手團 構成에 있어서 「다」項, 團長은 한사람으로 하자고 하는 뜻  
은 두사람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한사람으로 해야된다.

그러면 한사람으로 할때 어떻게 그 方法을 어떤 方法을 적용해서 한사  
람을 만들거나 할때, 選手의 수가 많은 쪽에서 團長을 맡게 하는 것이

가장 스포츠의 精神과 原則에 맞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안을 낸겁니다  
냈는데, 貴側은 오히려 均衡을 이미 維持하기로 돼 있는데 달리 解釋하면  
반반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똥똥지같은 소리냐 하는 식으로 우  
리에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 問題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상세한 言及은 안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 表現을 보면 貴側에서 지난번에 同意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능한 均衡을 顯著하게 잃지 않도록 한다. 均衡을 완전히 維持한다는  
뜻이 아니고 保障한다는 뜻이 아니고, 가능한 현저하게 예컨대 우리側  
에서 세명 나왔으면 귀측에서 일곱명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한 여덟  
명 나오면 귀측에서 두명도 나올 수 있고, 또 여섯명 나왔으면 네명도  
나올수도 있고 그러나 한사람도 안가고 완전히 빠져있는 式은 안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貴側이 지금 얘기하는거 보면 완전히 반반  
이 이미 되는 방향으로 合意된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또 우리하고 너  
무 差異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共同委員長, 共同事務局등 共同이라고 우리側에서 쓴  
用語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任代表께서 충분히  
설명드렸습시다만 그건 우리 內部的 問題입니다.

우리 內部的 問題에서 南北과 協議하는 過程을 어떻게 會議를 進行하고  
서로 意見을 交換할거나 할때 그 代表者들은 적어도 가끔 나와서 있어  
야 안되겠냐. 그래야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單一팀이 形成되고 난 뒤의 문제는 우리 內部問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內부는 다 合意를 본 거고 그 팀이야말로 對外國의  
機能을 遂行하는 겁니다.

그런데 南北이 각각 團長이 나서서 開會式도 둘이 들어가고 그러면 깃발도 두개 있어야지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會議을 하는데 그때 協議를 해서 또 머리를 맞대고 서로 協議를 해서 나간다는지 또 記者會見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代表해서 나가서 記者會見을 할거냐. 또 元首가 招請한다, 그래서 누가 代表해서 갈거냐. 거기서 싸울거냐, 거기서 또 協議를 할거냐.

뿐만 아니라 아까 指摘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國際社會에 나가는 그런 瞬間에 있어서는 적어도 國際「룰」에 따라야 됩니다. 이미 國際「룰」로 尊重을 해야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룰」이 올림픽憲章이라든지 OCA 憲章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OCA 憲章이 上程하고 있는 올림픽憲章 76條에 附則 36條에 보면 이미 단장은 하나다. 다만 그 選手團이 50名 以上이 될때는 副團長을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規定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合意해서 물론 그쪽에서 『우리가 둘이 좀 團長을 할 수 없느냐』하고 協議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規定에 그렇게 나와 있는것 까지 무시해 가면서 우리가 單一팀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서 거기 가서 그런 일이 있을수록 交渉은 해서는 안되고 있을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表現한 그 內容들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메모하시고 잘 들으셔서 깊이 생각해 가지고 많은 討論을 해야될 課題인 것 같습니다.

北(장웅) : 다 말씀했습니까? 우리 세진同志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北(김세진) : 그래서 이 問題와 관련해서 그 지금 南側에서는 團長을 한

명 내자고 하고 우리는 共同團長을 내자고 하는데서 意見相異가 지금 提起되는데 그 南側이 本質上 團長을 왜 한명내야 되겠는가 하는 그 選拔原則에서 選手數에 의해서 決定하는 그런 原則을 지금 提示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書記長同志 얘기를 한 가운데에는 왜 이거 두명을 選拔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團長을 選拔하는 데서 현재의 우리나라의 現實的 條件들을 잘 고려하면서 團長을 選拔해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團長의 任務를 놓고 봐도 共同團長을 選拔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견지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털어 보게 되면 團長을 選拔하는 데서 단순히 選手數에 의해서 하는 것은 너무 좀 단순하다, 단장선발문제를 보는데서. 이제 이런 여러가지 우리 장동지께서 제기한 것처럼 여러가지 側面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게 실지 唯一팀의 모든 活動과 事業成果를 이룩하는 데서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團長問題를 設定하는 데서 가만히 들어보면 다 우리가 唯一팀은 統一偉業에 이바지하는 그런 유일팀을 만들자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견지에서 團長을 설정하자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하나라야만 일이 잘 된다, 또 한쪽에서는 둘이 하는게 더 잘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根本差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하게 되면 우선 무엇이 문제시 되겠는가. 오늘 여기서 訓練問題를 討論했는데 朴秀蒼代表는 『한쪽 指導員은 다른 쪽의 選手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단장이 한쪽에서 나오면 다른쪽 사람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도 못할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을 놓고 볼 적에도 우선 團長이 둘 나와야 되겠다 하

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團長을 選拔하는 데서 우리가 重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우선 이것은 選手團의 活動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選手를 중심에 놓고 단장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물론 統一偉業에 이바지하는 견지에서 다 이야기됐기 때문에 이거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복 안하겠는데.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選手를 中心에 놓고 團長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選手들에게 團長이 하나 選定되는게 선수들이 더 좋아하겠느냐 또 둘 선정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共同團長으로 선정하는 것이 더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선수들은 예외없이 南側 選手들은 南에서 단장이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北側 選手들은 北에서 나와야 되겠다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選手들은 北에서도 나와야 되고 南에서 나와야 될걸 要求를 할 겁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때 말하자면 選手를 中心으로 놓고 할때,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요구하겠는가, 이렇게 놓고볼 때 이것은 아마 쌍방에서 다 나오는 것이 이걸 옳다고 選手들 利益의 견지에서는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側面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側面에서는 좀 얘기들이 되긴 됐지만 이 唯一팀의 特性과 관련돼서 좀 보면, 우리 唯一팀의 主要한 特徵이 그 構成上에서 볼때에 北과 南의 그런 選手들로서 또는 그 指揮成員, 監督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다 이렇게 北과 南의 選手들로서 구성되었다는것, 그렇기 때문에 이 構成上으로 볼때에 다 北과 南에서 構成되었는데 團長도 이것처럼 北과 南에서 構成하는게 옳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한쪽에서 團長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副團長이 나오게 된다면는 構成上에서 하나는 조금 色彩로 比諭한다면 좀 진한 색이 나고 한쪽에는 色彩가 좀 약해진다. 이걸 團長과 副團長 職級上 差異가 있는 것이니까, 내 이걸 좀 比諭한건데 한쪽은 좀 진하고 한쪽은 약해진다. 이런 관계가 造成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금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特性에서 주요한 것은 이제 그 唯一팀의 性格的 堅持에서 하나 본다면 이 北南唯一팀의 性格이 이거는 다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民族的 團合과 和解의 香氣를 풍기는 것 이게 아주 固有한 性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香氣란 것이 이것 또 말하자면 내가 냄새에다가 比諭했는데, 이 香氣라는게 어디까지나 北과 南의 選手, 北과 南의 指導員, 한마디로 얘기하면 北과 南으로 構成됐기 때문에 이 香氣가 풍기는 거지, 한쪽에만 되면 이런 香氣가 풍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固有한 性格의 香氣로 描寫를 했는데, 이것도 團長이 이제 처럼 北과 南에서 같이 구성돼서 나온적에 이런 香氣를 풍길수 있지, 한쪽에서만 團長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副團長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 香氣는 벌써 한쪽의 냄새만 더 날수 있겠다. 이렇게되면 이 唯一팀이라는 固有한 香氣가 풍기지 못하게 될거다.

이런 그 견지를 놓고 보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말하자면 여러측면이 있다. 具體的으로 選手들의 生活問題를 놓고 또 얘기를 해보자.

選手들 생활문제를 놓고 얘기를 할적에도 南側에서 나온 團長은 南側

選手에 대해서는 잘 알겁니다. 말하자면 南側 選手의 性格이라든가, 또는 風習이라든가, 또 이 모든 生活問題에 대해서 南側에서 나온 團長은 南側 選手들에 대해선 잘 알겁니다. 또 北側에서 나온 團長은 北側 選手들에 대해서 잘 알겁니다.

특히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分裂돼 있는 狀況에서 이 問題도 매우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訓練方法, 訓練競技方法 이런 면에서도 南側의 固有한 것 있고 北側의 固有한 좋은 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옹게 指導할 수 있고.

이제처럼 言語라든가 風習이라든가 生活 모든面에서도 역시 오랫동안 分裂돼서 差異들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이런 差異들을 잘 아는것은 南側 團長이 北側選手를 잘 모를 수 있다. 이것 잘 몰라서 딱딱히 잘 指導를 해주지 못하면 예외없이 訓練에서나 競技에서 착오를 범한다. 말하자면 影響을 준다.

이렇기 때문에 生活性面에 들어가 볼적에도 團長은 北과 南에서 하는것이 상당히 合理的이겠다. 이런 側面들도 생각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여러측면에서 考察해 보며는 團長이 共同團長으로 나오는 것이 合理的이다. 그런데 이제 南側에서는 共同團長이 나오게 되면 여러 側面에서 不當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前例의 獨逸實情도 任代表가 좀 얘기를 했지만 獨逸이야 사실 社會・歷史적으로 보나 또 현재 우리나라의 具體的 條件을 볼 적에 獨逸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나간 것을 우리나라에다가 지금 우리 實情에 機械적으로 導入하는건 우리 實情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나간 오랜 우리나라 實情과 맞지않는 이런것들 그저



機械的으로 導入할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가 여기서 唯一팀의 共同團長을 選定하는 것은 우리나라 現實的 條件, 또 우리 人民의 要求와 利益에 맞게끔 이걸 設定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IOC헌장에 불적에 이렇다. 團長이 한명이기 때문에 한명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憲章 自體를 제가 否認하는거 아닙니다. 헌장에는 단장이 한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憲章內容을 전반적으로 보며는 우리와 같은 이런 경우에 北과 南이 유일팀으로 출전하는 경우를 이 헌장에서는 어떻게야 된다는 것을 찾아보기 바쁘다.

그 憲章에 團長이 하나라는 것은 正常的인 團體들이 參加하는 경우고 지금 우리는 特殊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거 IOC 憲章에 모순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는 볼수 없다. 이런문제는 IOC하고도 앞으로 協議를 해서 合意를 이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정면에 나설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되고.

그 다음에 깃발問題도 하나인데 團長이 어떻게 들이냐 하는 問題도 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것도 놓고보면 물론 깃발은 하나지만 이 깃발이 南쪽 깃발도 아니고 北쪽깃발도 아니라는것, 이걸 唯一팀의 깃발을 우리가 특별히 討論해서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團長問題도 이렇게 討論을 해서 하자는 것이지, 그저 正常的인 狀態에서 자기나라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다 맞히는 것도 좀 事情이 있다. 그래서 이런 側面도 좀 留意해 불적에, 내가 오래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거 團長문제를 貴側에서 좀 再考를 해보고 다시한번 우리 案에 同意를 할것을 내가 促求를 합니다.

南(任台淳) : 뭐, 더 얘기할 것 없으세요?

北(김세진) : 예.

南(朴秀蒼) :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김세진 대표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제가 말꼬리를 잡는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訓練過程말씀을 하셨는데, 訓練過程에서 南과北의 選手들을 각기 별도로해서 하기도 하고 섞어서 하기도 했을때, 그때 누구의 코치, 감독의 얘기를 듣겠느냐 그런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北側 選手는 우리 南側 코치가 무슨 얘기를 하면 듣지 않을 것이고, 우리 南側 選手는 北側코치가 감독이 얘기하면 듣지 않을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때문에 결국 選手들이 감독, 코치의 말을 잘 따르고 그 指導에 제대로 應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둘이 되어 된다는 그런 論理인데, 그것을 제가 否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 우리가 單一팀이 構成이 되기 前段階입니다. 前段階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것이 오히려 좋아요.

그러나 單一팀이 일단 되었다는 얘기는 두쪽이 한쪽이 되었다는 얘긴데 한팀이 된다음에는 南과北이라고 하는 概念은 이미 떠나는거지요. 거기서도 南이다 北이다. 그걸 그대로 存續시킬 바에는 뭐하러 單一팀을 構成합니까? 차라리 別個팀으로 單獨으로 나가는것이 좋지요.

그다음에 그 選手들의 生活이라든지 또는 習慣이라든지 이런것을 北에서 만약에 團長이 되었을때는 南側 選手들들에 대해서 生活이라든지, 生活態度라든지 또는 버릇, 習慣같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反對로 했을때 또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團長이 해야될 일이라고 보기에 뭐하고, 選手團이 構成이 되면 거기에는 團長만이 任員이 되는것이 아니고 코치, 監督도 다 따라가고, 부단장도 따라가고, 무슨 總 監督도 따라가고 소위 關聯된 任員들이 따라가는데 그러한 選手들과 같이 生活를 해서 어느 사람의 態度가 어떻게 生活習慣이 어떻게 하는 것을 잘 理解를 해서 指導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것은 團長의 任務라기 보다는 그것은 監督이나 코치의 任務이기 때문에 團長이 相對方 選手의 生活態度나 習慣이나 또는 어떤 버릇이라든지 이런것을 일일이 알아야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單一팀이라고 하는것은 똑같은 얘기가 중복이됩니다마는, 둘을 하나로 합친것이기 때문에 이전 일단 합쳐지면 하나의 組織입니다. 組織의 原理上 소위 그 責任者가, 責任者가 둘이 될수는 없는 거예요. 한나라도 하나의 큰 조직입니다. 大統領이 둘이 될수 없듯이 責側에도 무슨 主席이 둘이될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의 組織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組織의 責任者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씀들은 서로가 다 하셨기때문에 중복되는 말이고. 그 公正性이라는 말도 公正성을 잃는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公正性이라는 말이 前提가 되려면 그것도 둘을 前提로하기 때문에 公正性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單一팀은 하나예요. 둘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公正性이란 말이 있을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로 끝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團長은 하나가 되어된다.

北(김세진) : 朴先生! 이제 그문제 뭐 …….

北(허혁필) : 제가 좀 얘기를 합시다.

北(장 웅) : 허대표, 허대표가 얘기 좀 하십시오.

北(허혁필) : 이러저러한 얘기가 이제 많이됐는데.

우리가 이唯一팀을 構成해서 나가자는 이 趣旨自體에 대해서는 曹英承先生도 이제 옳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저 競技에 뭐 둘이 합쳐서 나가고 만나가고 하는 問題가 아니라 제일 重要的 거는 이 和解를 圖謀하는, 거기에 寄與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意味에서 볼때 우리가 1次로 부터 5次 本會談, 그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實務接觸 두번, 이렇게해서 일곱차례 모여왔은 이 전체 우리 모임, 우리 이 會談의 基本을 관통하고 있는 思想이 무엇이겠는가? 앞뒤에서 어느 한쪽이 偏重하지 않는 이런 方向에서 가장 公正한, 그런 姿勢에서 우리가 會談을 하고 合意를 하고 다 이렇게 했던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名稱도 어느 한쪽의 것이 아닌 그런걸 정했고, 깃발도 어느 한쪽의 것을 代表하는 것이 아닌 그런 公正한 第3의 것을 택했고, 團歌도 그렇게했고, 또 기타 體育實務的인 이런 側面에서도 우리가 다 그런 方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團長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 貴側에서는 한명이 가야 된다. 두명이 가면 안된다. 이걸 내가 아까도 얘기한것처럼 한명이냐 두명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쪽을 代表로 하는 한사람이 가는게 아니고 兩側을 代表로 하는 共同의 團長이 가야된다. 우리 論理는 이건데, 한쪽만 代表하는 團長 한명이 가게된다면 이것이 北과 南사이의 和解를 圖謀하는데 이롭겠는가? 兩側에서 共同으로 나와서, 共同의 團長이 가서 이 團長을 하는것이 北과 南이 團습을 維持하

인데, 圖謀하는데 有利하겠는가? 이걸 난 明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貴側의 얘기를 들어보면 實務적으로 이러저러한 問題가 걸린다고 하는데 實務적으로 걸릴것도 없습니다. 實務적인 問題들은 이제 方法을 研究를 하면 얼마든지 나올것이고. 그리고 이제 OCA나, 이제 IOC 헌장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건 唯一팀을 構成하게 될 그런 境遇를 豫見하지 않았을때 그런 憲章이야기이고, 우리가 이제 唯一팀을 構成한다는 이 自體도 지금 憲章에는 없는것 아닙니까?

이런의미에서 보면 이 憲章問題 혹은 이 組織委員會와의 關係問題, 이런 問題는 이제 별거 論議될것 없고, 또 實務적인 側面에서 이제 걸리는 이런것도 문제가 없고.

제가 이제 더 얘기하고 싶은것은 한쪽에서 나온 한명의 團長이 가서 이 和解와 團합을 하는데 저해가되는 이런걸 止揚하고 兩側에서 共同의 團長을 만들어서 이렇게가서 和解와 團합을 도모하고 促進하는데 좋은 後者를 택하는것이 가장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會談을 그런 方向에서 잘 진척해왔는데, 이제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優劣을 가려서 어느 한쪽이 이제 다른 한쪽을 누르는 것 같은 또 끌고가는것같은 이런 印象을 造成한다면, 이 唯一팀 構成의 趣旨에 맞지 않는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원래 따지자면 애당초 우리가 이 會談을 시작할때에 처음부터 團歌를 정하거나 깃발을 정하거나 이렇게 하는것도 다 힘내기를해서 어느 한쪽이 이긴쪽이 한다. 이런 原理나 이제 같은 그런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건데.

그래서 이걸 극단적인 實例고 지금 현재 이게 論議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共同的 團長이 가서 民族的인 和解를 圖謀하는데 좋게 하자. 아까 우리 다른 代表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쪽에서만 團長이 나온다. 그쪽에서는 團長이 안나온다. 이렇게할때 南쪽 選手들이 기분이 좋겠는가? 또 그것이 對決觀念에 對決을 이제 더 어딘가 이제 促進하는 걸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側面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면에서 讓步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대범하게 그쪽에서 이제 우리의 이런 公正한 이 提案에 同意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南(任台淳) : 뭐, 얘기할 것 없습니까?

南(曹英承) : 몇 가지만, 우선 團長制度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이런 方法論議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적어도 우리 이 會談은 北京아시아競技大會라고 하는 國際競技大會에 南北이 單一팀을 만들어서 나가는 일을 協議하기 위해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國際競技大會를 규율하고 조정하고 適用하는 그 關係規定들을 언급함에 있어서, 그런것은 언급해서도 안되고 언급할 必要도 없다. 또 거기에 拘碍돼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식의 얘기가 만일 우리의 이런 會談에서 論議되었다고 記錄이 되어 있을때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해서는 안되지요.

그 OCA 憲章이나 올림픽憲章이 우리 憲法이나 우리 法律보다 더 優秀하기때문에 그거를 따르자. 우린 힘이 없기때문에 그걸 따르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單一팀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은 國際大會니까, 그때 나가서 따라야할 規定들을 우리 적어도 尊重하자는 의미

에서 그 의미 하나 하나를 우리가 적어도 짚어봐야 한다는 의미니까. 절대 그것을 輕視하거나 여기서 論議할 必要도 없다 하는 식의 얘기를 여기서는 해서 안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獨逸 예를 드는데 貴側代表가 왜 남의 나라 예를 드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구태여 獨逸의 예를 듣거는 아닙니다. 뭐냐하면 單一팀을 構成해 나가는 過程속에서 그 각각 떨어져 있는 兩體制가 얼마나 다르냐 차이가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獨逸과 우리 韓半島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討議해 나가는 過程은 다르다하더라도, 이 過程을 거쳐서 한팀을 만들어서 나갔을때 對外國에 대한 代表의 技能에 있어서는 獨逸이나 우리가 똑같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를 듣건데, 그런것도 구태여 자꾸 남의 얘기니까 듣지말자.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실지로 國際大會에 나왔을때 어떤일이 있었느냐 하는것을 우리가 정말 他山之石으로 생각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例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貴側에서 지난번에 同意한다고 그런 項目중에서 監督은 選手가 많은 측에서 말자 하는것을 認定을 했습니다. 아까 김세진代表나 허代表께서 이 選手들이 좋아하는 方向이 뭐냐 하는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團長도 있고, 너희 團長도 있는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선수들이 무엇을 좋아하겠느냐? 가장 관심 깊고 피부로 같이 接觸을 하면서, 이 關心이 가장 높은 부분은 監督입니다. 貴側에서 말하는 責任指導員입니다. 그럼 책임지도원도 그러면 貴側의 論理대로 얘기하면 둘을 한다고 얘기를 끝까지 주장을 해야지요. 그

런것은 하나로 한다 하면서 團長은 왜 그 階級이 높다고 들을하고, 계급이 낮다고 하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가장 스포츠的 原則과 精神이 어떻게 適用되어야 되느냐 하는것을 생각을 해볼때, 이렇게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貴側도 사실은 監督을 選手가 많은 側에서 맡는다, 하나로 한다 하는것을 認定을 한 겁니다. 하나도 다른바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團長만 가지고 共同團長制를 끝까지 主張한다고 하는것은, 이 어떤 唯一팀을 構成하고자 하는 趣旨에서나 또 우리가 合意하고자 하는 그 內容의 흐름에 있어서나, 國際關係의 規定에 있어서나 상당히 맞지 않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北(장 웅) : 任先生, 뭐 말씀할거 있으면 하십시오.

南(任台淳) : 뭐 말씀할거 있으면 하세요.

北(장 웅) : 먼저 하십시오.

南(任台淳) :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問題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이 團長문제는 아까 선수선발에 있어서 選拔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核心的인 問題라고 했듯이, 선수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團長과 任員을 어떻게 構成하느냐 하는것이, 이 選手團을 가장 効率的이고 또 單一팀의 趣旨에 맞도록 構成하는데 있어서 核心的인 部分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核心部分에 있어서 雙方間에 異見이 있는데 우리들 立場에서 생각을 하는것은, 그리고 이제 客觀적으로 이 問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적에 적어도 스포츠 技術上의 問題를 考慮해서는



더 말할 必要도 없고 이 單一팀 問題의 근본취지라고 할 수 있는 民族團합이라고 하는 차원, 아까 그 허선생 그 單一팀의 취지말씀을 하셨는데 이젠 뭐 南北이 말하자면 그 네가 위냐, 내가 위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單一팀문제라고 하는것은 團합을 指向을 하는 스포츠分野에서 團합을 指向하는 問題로서 특히 國際社會에서 團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문제가 이 單一팀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國際社會에 民族的인 團합을 보여주는 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또 아울러서 國際社會에 우리 選手들의 優秀한 技倆을 과시하는 면에 있어서나, 그러니까 單一팀 構成의 趣旨가 團합을 과시하고, 또 우리의 훌륭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問題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單一팀 構成의 모든 취지에 비추어 불적에 적어도 단장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적어도 이젠 會議體가 될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한몸에 하나의 머리로 해서 北京大會에 나갈수 있어야 되겠다는데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선생께서 좋은 의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北(장웅): 제가 좀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베이징」 第 11 次 아세아 競技大會에 北과 南이 唯一팀으로 參加하기 위한 本會談이 다섯번 있었고 지금 두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 本會談과 實務代表接觸에서 貫通하고 있는 一貫한 意志라고 할까, 이런 그 信念이라고 할까,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貴側의 提案들에도 명백히 밝혀져 있는 바와같이 北과 南이 서로 優劣을 겨루지 말자. 이것이 제 생각에는 아마도 本會談과 實務代表接觸, 雙方이 내놓은 提案들에서 貫通하고 있는 一貫한 意志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團長問題에 와서 貴側은 團長을 결국에 가서는 優劣을 겨루자. 겨워서 많은 人員이 나가는 쪽에서 團長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쪽에서 副團長이 나오자. 이견데 이것이 우리 본래 지금 토론해 오고 있는, 協議해 오고있는 意思와 맞지를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 極端한 實例를 들자. 예를들면 지금 完全한 팀, 完全한 北南唯一팀이 構成이 되면 示範出戰種目 34名을 제외하고 꼭 710名입니다. 꼭 710名. 이게 극단한 實例인데 그건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極端한 情況도 여기에 定立하는 것은 原則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10名인데 355名씩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355名씩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또 優劣을 겨루는 식으로 團長問題를 다루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우리 代表同志들이 말씀한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名稱問題, 깃발問題, 노래問題도 간단히 언급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名稱問題, 깃발問題, 노래問題도 第3의 案으로 택했습니다. 제3의 案을 택했는데 결국에가서 이 團長問題에 있어서는 第3의 사람을 갖다 내놓을수가 없다. 그러니까 公平하게 하자며는 이 共同團長이라는 하나의 職制에다 두명을 넣는 것이 合當하다.

세번째로는 이제 언간된 올림픽憲章 우리 허혁필同志 말씀을 했는데, 올림픽憲章 문제와 OCA憲章 그 憲章의 기본목적 올림픽憲章의 目的. 그러니까 OCA헌장의 기본원칙 「fundamental principle」인데 여기에 준해서 나머지 항들이 다루어진 다. 國際規約의 規定이기 때문에 이기는 움직일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정의할수는 없습니다.

이 基本目的과 基本原則에 따라서 그 다음것들이 展開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歴史的으로 올림픽競技나 아시아競技大會를 봐도 이 基本原則에 따라서 때때로 修正을 하지요. 修正을해서 우리에게 맞게 執行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IOC憲章의 基本目的과 OCA憲章의 基本原則이 뭐냐. 그것은 和解와 團結, 平和를 指向하는 겁니다. 이번 「베이징」 아시아競技大會의 구호도 그렇습니다. 親善・團結・進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맞게 처리하면 큰 문제될 것이 없겠다.

아까 任先生 獨逸 實例도 들었지만 獨逸도 共同團長으로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絕對化할 必要는 없겠다. 정 안되면 任先生하고 나하고 OCA本部 「쿠웨이트」에가서 「웨이크・파하드」만나서 討議를 하고 또 그쪽에 副委員長도 있지요.

이게 解決 못할 問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解決 못하겠다고 前提를 하며는 우리가 점점더 모든 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서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讓步를 많이 했는데 이거하나 그쪽에서 同意를 하십시오. 동의를 하고 이거 하나쯤이야 그쪽에서 동의를 해야지.

다음으로 이제 和解의 見地에서 보면 내생각에는 우리측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명이 가는것보다 아마 두명이 가는것이 和解의 見地에서는 더 낫고 그게 아마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한번 任先生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과 組織委員會 사람들이 38個 나라가, 이제 38個 팀들이 오겠는데 우리가 유일팀으로 가면 37개가 되겠는데. 그쪽 사람들이 우리 共同團長

둘이 손목을 쥐고 같이 다니면서 하면 아마 다 歡迎할겁니다. 이것 반대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曹先生 말씀한 것, 共同團長 運營問題와 관련된 것은 別個의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체로 보면 共同團長들의 行事라는게 그저 한 9個程度 됩니다. 그 期間에 9回程度 되는데, 그것은 共同團長問題가 合意되면 方法은 뭐 수없이 많은거고.

任先生님,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團長 들이 손목을 쥐고 다니면 이것을 歡迎하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 겨루어서 하나 온것을 더 歡迎을 하겠는가?

南(任台淳): 그러니까 지금 장선생 얘기들이 한 소리가 계속 되풀이 되는 내용인데 결국은 選手團 團長이 둘이 나가서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주장이죠?

北(장 응): 예.

南(任台淳):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불적에는 이견 뭐 지나간 이야기를 여러번 되풀이 하는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團長이 둘이 나간다고 하는것은 體育會談을 北京 現地로까지 끌고 가야되겠다 이러한 側面이 우려됩니다. 적어도 問題는 選手團이 單一팀으로 가서 하나의 몸뚱이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사람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지, 적어도 現地에 가서 두사람이 계속 協議를 할 바에는 이견 單一팀으로 보기가 어렵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協議를 하는 過程은 南과 北이 각기 代表, 首席代表, 團長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되 적어도 單一팀이 構成된 후에 그 選手團은 한 덩어리가 돼야 되겠다.

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 손을 잡고 다니면 좋으면 좋았지, 아 손잡고 다니는거야 雙方의 올림픽委員會의 委員長이나 올림픽委員會代表들이 다가맞 손잡고 다니는거지, 꼭 團長끼리 우리는 몸이 들일 수 밖에 없어서, 머리가 돌이니까 손잡고 다녀야 됩니다 하고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건 얼마나 서글픈 얘깁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南과 北의 올림픽代表들이 따로따로 가자고, 그나마 사이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건데 團長의 모습이 들이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누가 選手團을 代表해서 對話를 나눌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손을 잡고 다른나라 代表를 만났는데, 團長을 만났는데 『우리 團에서는, 코리아單一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물으면 어느 團長이 答辯을 해야 좋습니까? 둘이 똑 같이 입을 맞춰가지고 쌍나발을 불 수도 없는 거고,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現實적으로 不可能한 것을 可能하다고 자꾸 論理를 展開하는 것은 體育技術적으로 봐가지고 無理한 主張이 아니겠는가, 우리 이거 實質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北(장웅): 말씀 다 하셨습니까?

南(任台淳): 예.

北(장웅):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몸이 하난데 머리가 둘이다. 우리 머리가 둘로 보질 않습니다. 그건 이제 共同團長制가 貴側에서 合意를 하면 共同團長 運營問題, 行事問題는, 團長行事問題는 다른 問題입니다. 그건 合意할 對策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次代表接觸에서는 우리가 많이 讓步했는데 2次接觸에 나와서야 그래도 任先生 하나 양보를 해서 우리案에 同意를 해

가지고 …….

南(任台淳) : 아니, 그러니까 …….

北(장 웅) : 任先生! 하나만 물어봅시다.

共同團長으로 해서 우리들이 通俗的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北과 南에서 나온 共同團長들이 자리를 같이하고, 行事에도 같이 參加하고, 같이 다니면 「베이징」에 온 다른나라 代表들과 組織委員會나 거기 市民들이나 우리 觀光客들이 이것을 歡迎할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습니까?

南(任台淳) : 아, 물론 兩側 사람이 나가는 얼굴에다 대고 침을 뱉진 않겠죠.

北(장 웅) : 歡迎하죠? 글썄, 歡迎하죠?

南(任台淳) : 그러나 내가 올 적에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들을 놓고 비웃음을 웃겠는가?

北(허혁필) : 지금까지 완전히 對決이 돼 있던 사람들이 손잡고 오면 좋아하지.

南(任台淳) : 지금 選手團을 構成해 왔다는 것이 머리가 두통이 돼 가지고 나왔구나. 이거 웃음거리입니다, 웃음거리.

北(장 웅) : 머리를 둘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라 그거예요.

北(김세진) : 머리아 하나지. 共同團長이니까.

南(任台淳) : 分斷이 된 것도 서러운데 單一팀을 머리가 둘로 해서 나갈 바엔, 아예 반 짝갈라서 南쪽이 반, 北쪽이 반, 둘로 두부모 쪼개듯이 해 가지고 이름만 單一팀이라고 해서 나감시다 하는 얘기가 마찬가지지. 머리통이 둘이어서는 난 機能發揮가 不可能하다고 봅니다.

北(장 웅) :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겨레나 다른 사람들이, 共同團長들이

와서 活動을 하면 支持해 주고, 聲援해 주고 이거 이제야 이 땅에서 和解가 이루어지고 血脈이 통하누나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죠, 환영을 받고.

南(曹英承) : 내 하나 물어봅시다.

北(장 웅) :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南(任台淳) : 그 참, 말도 같지 않은 소리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지금 團長이 둘이 나가는 것이 歡迎을 받는다는 論理인데, 單一팀의 團長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나가야지 歡迎을 받는다는 論理인데, 그러한 論理라면 南北이 個別팀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歡迎을 받는 모습이라는 그런 論理로 發展이 됩니다.

北(장 웅) : 아, 이거 다른 얘기로 번지십니다.(웃음)

南(任台淳) : 團長이 둘이 나가야지만 환영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個別팀으로 나가서 사이 좋게 보이는 모습이 더 歡迎받을 수 있다는 그런 論理로 展開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北(장 웅) : 雙方意見이 合意點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번 接觸에 나오실 땐 우리 案을 좀 더 잘 研究하셔서 同意하도록 그렇게 研究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南(任台淳) : 오늘은 그러면 이것으로 그만 두자는 것입니까?

北(장 웅) : 그래 時間이 많이 간것 같은데 12時 30分이구만?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南(任台淳) : 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論議를 오늘…….

南(曹英承) : 잠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南(任台淳) : 예. 그러세요.

南(曹英承) :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나와서 意見을 가져올 때도 重要하고 해서 허대표에게 내 한가지 묻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몸은 두개이지만 그게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北(허혁필) : 몸은 두개다?

南(曹英承) : 共同團長이 나가면 『사람은 두사람인데 그게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엇이 하나입니까?

北(허혁필) : 象徴的으로 이야기해서 이것은 各各 한 側만 代表를 하는 그런 두사람인게 아니라 「共同의 團長」이다. 이렇게 보면 「共同의 團長」이라는 그런 意味에서는 그것이 하나나 같은 그런 象徴을 한다 그런 말이지요.

南(曹英承) : 아니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表現한다고 하더라도 具體的으로 사람이 두사람인데 뭐가 하나라는 뜻입니까?

北(허혁필) : 共同의 團長이 하나지 뭐.

南(任台淳) : 글썸 그러니까 共同團長의 代表는 누구냐 이것이지요?

北(김세진) : 글썸 그건 實務的인 問題죠 任先生! 그 共同團長은 좋고 代表權問題를 討論하자면 그건 또 별개의 問題이고.

南(曹英承) : 됐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어쨌든 「스포츠」交流에 있어 가지고 뭐 쉬운 例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게 지금 「디스커션」(Discussion) 討論인데 어떤 「스포츠」競技에 있어서 다섯 사람이 나가는데 적어도 하나 뚫은 두사람이 합쳐 가지고



이것은 한사람입니다 하는 경우가 「스포츠」예에 있습니까?

北(허혁필) : 그거 왜 그것 가지고 是非를 걸고…….

南(曹英承) : 왜 내가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은.

北(허혁필) : 우리가 짚고 들어가 이야기 하듯이…….

南(曹英承) : 내 얘기 들어 보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 얘기 들어 보시라니까요.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 뭐 어떤 固執을 말씀을 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項目 하나하나를 解決해 나갈 때 우리가 두어야 할, 依據해야 할 基準이 뭐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스포츠」精神과 原則입니다.

北(허혁필) : 그러니까 共同의 團長은 안된다 그런 뜻인가요?

南(曹英承) :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서로간에 充分히 개진이 되었어요.

北(장웅) : 아, 그러니까 이제 整理합시다. 整理하십시다.

南(任台淳) : 자, 그 程度로 해 두지요.

北(장웅) : 오늘 그저 두번째 이 實務代表接觸에서는 그저 다섯번째 項選手訓練問題, 訓練問題에 대해서는 이 內容上 다 一致合意를 보았습니다. 뭐 選手團 이 構成問題 討議하다가 다른 問題는 일 없고 團長問題에서 우리가 내놓은 共同團長案이 團長問題 解決해서 雙方에 共同하고 그러는 것인데 貴側에서 오늘은 지금 받아들이지, 同意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合意되지 못했는데 다음번 接觸에 나오실 때 이 共同團長案을 좀 잘 研究를 해서 合意하도록 그렇게 研究해 가지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 1次接觸에서도 그렇고 우리 讓步를 많이 했는데 이것 뭐 가

는 것이 있으면 또 오는 情도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方向에서 그저 우리는 다음번 實務代表接觸에서 貴側의 이제 肯定的인 反應이 있게 되기를 期待합니다.

南(任台淳):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이제 두時間 半동안에 接觸을 했는데 나는 오늘 接觸을 總體的으로 놓고보면 이렇다할 進展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아시안 게임」의 날짜가 이미 9月로 정해져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單一팀 構成을 6月 22日까지 完了를 하기로 雙方間에 이렇게 合意가 되어있는 狀態인데 果然 이러한 느린 걸음으로 가서 어떻게 그 날짜에 맞출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아직은 뭐 餘裕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더 서두르지 않고서는 조금 憂慮될 點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데요. 그런 意味에서도 우리가 조금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스포츠」問題를 순수한 「스포츠」次元에서 이것을 解決하려고 하는 그러한 姿勢가 必要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民族和合·和解의 精神을 加味를 하는 立場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檢討된 內容을 보면 貴側 要求대로 이제 5項부터 討議를 해 나갔는데 5項 「選手訓練」 6項 「選手團 構成」 두개 項目을 討議하는 가운데 選手訓練問題와 關聯해서는 基本的으로 見解가 一致되었다 이렇게 이제 雙方間에 確認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選手訓練과 관련해서 「合同訓練」과 「強化訓練」이라고 하는 用語表記問題에 대해서 서로간에 뭐 다소간의 意味와 관련한 論議가 있

있습시다만 그 部分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에 表記를 할적에 明白히 하기로 雙方間에 見解의 一致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選手團 構成問題와 關係해서 다른 項目들에는 異狀이 없습시다만 지금 選手團 構成問題 가운데서 選手團의 團長을 單一 團長制로 하고 副團長을 둘 것인가? 選手가 적은 側에서 副團長을 둘 것인가? 共同團長制로 할 것인가?

이 問題를 가지고 長時間 討議를 했습시다만 역시 雙方間에 意見이 이것은 팽팽하게 平行線을 긋는 狀態에서 一步의 進展·前進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로서는 이 選手選拔의 選拔戰 性格問題와 함께 選手團 構成에 있어서 이 團長問題가 그야말로 單一팀의 運命을 左右할 수 있는 아주 核心的인 問題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側이 單一團長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民族的인 側面에서 보나 또 國際競技에 나가는 그 性格面으로 보나 이것은 單一團長으로 당연히 나가야 되고 또 競技規則에도 그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問題에 대해서도 貴側이 다음번에 나올적에는 肯定的인 立場을 提示해 주기를 希望합니다.

특히 다음에 選手團 構成과 關係해서 任員問題에 대해서 貴側은 이미 異意를 提起해 놓고 있는데 이런 問題를 論議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이 團長問題가 어떻게 풀려 나가는가 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고 봅니다.

그런 意味에서 貴側에게 이제 다시한번 當부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貴側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1次 接觸때 이제 우리가 論議를 한 것 가운데에서 첫째項 呼稱問題에 있어서 中國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問題, 그리고 選手選拔問題와 關係해서 選

拔戰을 南北 選手間에 公開裡에 實施하는 問題 그리고 또 採點種目の 경우에 두명 이상이 出戰할 때는 한사람을 적어도 진 側에서도 包含시키도록 하자고 하는 問題를 다른 경우에다가도 包含을 시키자고 要求를 했는데 지난번 會談때 우리들로서는 다른 種目에 과연 어디에 적용하겠는가?

우리는 이미 그것을 受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接觸에서 貴側 意見을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계시는데 그래서 그 意見도 다음번에 주시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또 뭐 그렇게 알고서 오늘은 接觸을 그만 하자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北(장웅) : 그래서 이제 任先生 길게 말씀을 했는데 이 實務代表接觸을 박차를 가하고 서둘러야 되겠다. 그게 아주 重要합니다. 오늘 接觸에서 보면 좀 더 代表接觸에서 成果를 거둘 수 있었는데 不必要한 用語問題, 이 實務代表接觸에서 그 用語를 統一하는게 實務代表接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用語問題로 해서 30~40分間 空轉을 시켰습니다. 互相 理解가 初步적으로 될 問題인데 이걸 다시 이제 提起함으로써 이 訓練問題 이미 4次接觸때 內容上 同意를 우리가 준건데 그 用語問題를 가지고 이제 오래 時間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所期의 成果를 期待했던 것보다는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貴側에서도 이제 共同團長問題, 우리가 내놓은 共同團長問題에서는 이제 一步의 讓步도 지금 하지 않을았는데 이것이 選手團 構成에서 核心的인 問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單一團長制가 가장 適當한 것이고 共同團長制야말로 適當치 않은 것이라는 主張인데 우리는 이 共同團長制야말로 北과 南의 和解를 圖謀하고 唯一팀이 「베이징」競技大會에 가서 우리가 期待했던 그런 成果를 거두는데서 가장 合理的인 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이 共同團長制를 提案한 우리의 意見에 同意하도록 貴側이 좀 더 深思熟考해서 다음번 接觸에 나와주기를 希望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任先生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時間을 그저 繼續해서 열 번째 項目까지 내려갔더라면 다시 처음에 約束한 바대로 1次 代表接觸에서 속제로 내놓은 이런 問題들에 대한 좀 더 具體적인 좀 反應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 不必要한 論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接觸에서 이 뒷問題 우리가 다 쳐보지 못했던 뒷問題들을 잘 研究해서 討議를 하고 貴側이 願한대로 論議할 것은 論議하는 方向에서 우리가 다음번 接觸을 가지자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接觸날짜를 그저…….

南(任台淳) : 다음번 接觸날짜를 論議하기 前에 한가지만 내가 장선생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側 案을 놓고서 討議를 雙方間에 進行을 하고 있는데 이게 實務代表接觸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用語의 問題 가지고 時間을 보냈다 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用語의 問題가 경우에 따라서는 決定的인 意味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用語問題를 論議하는 것도 매우 重要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用語問題를 論議했

다는 立場을 말씀드릴려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2次接觸을 하고 이제 3次에 들어갈 그런 狀況에 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貴側에서 다음번에 貴側이 이 10個項을 綜合적으로 貴側 表現을 가지고 整理한 10個項 그것을 우리側에게 달라고 하는 것을 나는 正式으로 要求를 합니다.

왜냐하면 貴側 말대로 用語라든가 表現問題는 貴側 나름대로 쓰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表現까지를 우리가 하는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면 問題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貴側의 案을 꼭 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부를 주십사 하는 것을 正式으로 이야기 합니다.

北(張 勳): 앞에 거 討論된 問題도 또 꺼내시는구만.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이런 그거 意見이 있는데 지금 우리 雙方間에 대체적으로 意見들을 다 내어놓았고 그쪽 意見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쪽 意見을 그쪽에서 알고 있고.

다음번 接觸을 할 때 그쪽에서도 定立된, 定立된 合意書 草案같은 것을 그쪽 便利한대로 만들어 가지고 나오고 우리는 또 우리가 便利한대로 만들어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南(任台淳): 아 그러니까 雙方이 案을 내놓는데 얼마만큼 말하자면 具體的인 案을 내놓느냐 하는 것이 나는 重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貴側의 경우는 이 案이 말하자면 이가 빠진 狀態로 우리가 지금 檢討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나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이제 그 合意書라든가 이러한 問題는 예컨대 이제 雙方의 基本事項에 대해서 이제 意見이 一致되면 그것을 土臺로 해

서 合意書 만드는 것이냐 그까짓것 簡單한 問題 아닙니까?

그러면 또 雙方間에 그저 좀 必要하다면 文案整理를 위해 가지고 實務적으로 協議를 하는 時間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基本事項에 어떻게 合意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重要하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要求하는 것은 이 基本事項. 나는 貴側에서 지금 合意書라는 用語를 썼든 뭐를 썼든 우리가 볼 적에는 基本事項에 대한 나열들이 말하자면 누락이 된 部分들이 지금 있는 狀態라 이겁니다. 우리한테 提示된 部分이…….

그러니까 그 基本事項에 대한 項目이 좀 채워진 그러한 案을 우리側에게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北(장웅): 그런데 지금 이 問題가 왜 다시 提起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貴側의 意見を 우리가 이제 研究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項까지 內容上 同意를 다 했죠.

南(任台淳): 그러니까 內容上 同意를 한다고 하는데 表現을 달리 쓰겠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北(장웅): 內容上 同意를 하고 예, 그 表現은 用語上 問題인데 그러니까 지금 貴側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用語까지 다 統一을 하자는 것인지? 實務代表接觸에서.

南(任台淳): 아 重要的 用語는 다 統一을 해야죠. 重要的 用語는 統一을 해야죠.

北(장웅): 實務代表接觸에서 用語統一이 아니라 그 內容上 合意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南(任台淳): 그러니까 內容上 完全히 一致되었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어

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北(장웅) : 그러니까 오늘같은 것은 事實上 그 用語上 一致가 되었는데  
공연히 時間浪費한단 말입니다.

南(任台淳) : 아니 김대표가 자꾸 달리 解釋하는 것 같은 말을 하셨는데  
요 뭘.

北(장웅) :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讓步를 많  
이 했는데 貴側에서도 좀 讓步를 하십시오.

南(任台淳) : 아니 讓步에 대해서 말씀 또 하시겠습니까?

北(장웅) : 예, 이제 뭐이나 하면 오늘도 좀 하나 讓步를 해야지 뭐.  
期待를 가지고 나왔는데 繼續 그…….

南(任台淳) : 아니 이게 지금 貴側 論理로 따지면 이게 全部 따지면 한  
70 個項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北(장웅) : 예순 한 서너項 되지요.

南(任台淳) : 뭐 거기에 이제 題目까지 다하면 한 70 個項 되는데 事實  
우리 70 個項을 構成하는데 있어서 대역섯가지 部分에 意見差異가 나는  
部分을 除外하면 나머지는 다 貴側의 意見を 尊重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實際 얘기를 해서 選手團의 合同訓練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 같은 것  
이제 아주 基本事項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讓步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北(장웅) : 다 基本事項이라고 任先生은 다 基本事項이라고 하니까.

南(任台淳) :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뭐 그 細部事項에 대해서 意見이  
같은 것을 가지고 讓步했다.

北(장웅) : 共同團長은 核心事項이고 다른 것은 基本事項이면 同意할게



하나도 없구만.

南(任台淳) : 그러니까 讓步論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서로 생색내기 밖에 안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北(장 웅) : 任先生 그렇지는 않은데 가끔 참 인색한 맛이 있는 것 같애.

南(任台淳) : 우리 말이요, 우리 말입니다 讓步를 누가 했느니 뭐 이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맙시다.

北(장 웅) : 그래서 다음번에 그저 우리 案에 좀 同意해서 그런 側面에서 잘 나와서.

南(任台淳) : 생색을 내보았자 그것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생색, 생색하고 그래요?

北(장 웅) : 아니 생색이 아니지, 이거 생색이 아네요.

南(曹英承) : 그래 『우리 案에 同意해 달라』하는 이런 것은 참 좋은 表現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讓步했다 안했다』 이런 얘기는 서로가 참가하는게 좋아요.

北(장 웅) : 曹先生! 讓步한거야 한 것이지 그걸 또 안했다 뭐 했다 그걸 하지말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讓步한게 事實인거고.

南(曹英承) : 여기 70個項에서 우리가 事實上은 讓步한 거예요.

北(허혁필) : 讓步한거는 讓步했다는 말이 아주 좋은 뜻인데.

南(曹英承) : 事實上 우리가 貴側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讓步해서 만들 거예요.

北(장 웅) : 다음번 接觸날짜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南(任台淳) : 그쪽에서 한번 짚어보세요.

北(장웅) : 13日 水曜日.

南(任台淳) : 13日? 가만있어 보자.

南(朴秀蒼) : 아니 장선생! OCA 總會 안가세요?

北(장웅) : 그朴先生님 가면 같이 가야 되겠구만. 아 OCA 보다 이것이 더 重要한데 뭐 이걸 해야지.

南(任台淳) : 12月 13日은 너무 促迫하지 않아요?

北(장웅) : 뭐 1週日 먼저번 보다 멀지요.

南(朴秀蒼) : 促迫해요.

南(任台淳) : 그래 이 OCA 總會 그런 것 보다도 한 15日頃에 한번만 나가지고 總整理를 하죠?

北(장웅) : 15日은 金曜日인데 13日, 13日에 좀 합시다. 13日에.

南(任台淳) : 뭐 1日날도 金曜日이었는데? 뭐 15日 나쁘면 우리 18日 날도 있는데?

北(장웅) : 任先生 그 날짜짚는 것 한번 그나마도 同意못하겠는가? 야 그것.

南(任台淳) : 아니 지난번에야 뭐 貴側이 짚은 것 우리가 同意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南(曹英承) : 이렇게 하십시오. 날짜는 서로 상의해서 定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冒頭에 討論된 바와 같이 많은 項目이 있지만 실지로 意見を 달 리하는 部分이 가장 重要的 部分인데 그 部分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意見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例컨대 뭐 呼稱問題도 그렇고 그 다음에 選手選拔問題 公開與否 1回 1名 以上 包含與否의 其他事項 適用·選手團長 등등 이와 같이 아주 意

見이 尖銳하게 對立되고 있는 部分이 남아있는 狀態에서 자꾸 만난다고 해서만이 問題가 解決되는 것이 아니라 貴側이 돌아가서 그 問題에 대해서 充分히 關係人들과 其他 專門家들과 充分한 時間을 갖고 討論을 하고 우리도 그런 節次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意見이 接近된 가운데 討論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급하게 會議을 자주 開催한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18日날 뭐 月曜日이기 때문에 日曜日날 쉬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뭐 이게 큰 일이니까 조금 讓步해서 가지고 18日 썸으로 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2日이 바로 이어지니까 그런 式으로 하면 우리가 實務接觸을 하고 또 다음에 代表接觸까지 또 너무 많다 하는 點을 考慮해야 됩니다.

北(장 웅) : 任先生 意見은 또 뭐니까? 우리는 13日 짚었는데?

南(任台淳) : 그러니까 15日 받아들여지면 되는 것 같아요.

北(장 웅) : 曹先生은 또 18日이라고 뭐 이거 뭐.

南(曹英承) :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案이라 그거지요.

南(任台淳) : 아니 이제 뭐 그러니까 18日도 우리가 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또 뭐 貴側에서 꼭 18日로 하자면 우리가 18日로 할 수 있고.

北(장 웅) : 그러면 15日로 합시다.

南(任台淳) : 예 그렇게 합시다.

다음에는 보따리 좀 좋은 것 가지고 나오세요.

北(장 웅) : 아니 任先生 보따리가 좀 좋은게 나와야 된다고요.

北(김세진) : 任先生님 지금 보따리 보따리하는데 任先生답게 단 한번만이  
라도 『내가 그것은 同意합니다』 그 말이 한번 나와 보았으면 좋겠어.  
南(任台淳) : 아 뭐 繼續 同意한 거 아닙니까? 지금.

〈附 錄〉

---

---

代 表 團 記 者 會 見

---

---

## 〈代表團 記者會見〉

- \* 日時 : 1989.12. 6 (水) 13:00 ~ 13:21
- \* 場所 : 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 \* 發表 및 答辯 : 任台淳 首席代表

### 1. 記者會見文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會談은 10時부터 12時 50分까지 2時間 50分동안 進行이 되었는데 사실상 豫想했던 만큼 討議를 進展시키지 못했 다 하는 아쉬움을 남긴채 會談이 끝났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討議된 內容은 選手訓練問題와 選手團 構成問題 두가지 항목이었습니다.

選手訓練問題와 관련해서는 역시 오늘 會談도 우리측 案을 놓고 協議를 했던 關係로 첫번째 項目 『訓練은 合同訓練과 強化訓練으로 區分하여 실시한다』하는 問題에 대해서 北側은 이걸 共同訓練과 綜合訓練이라고 表現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相互間에 意見差異가 없 는가 하는 部分을 確認할 必要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가 討議가 됐는데 討議過程에서 아직도 北韓側의 뜻이 明白하게는 드러나지는 않았습시다만 우리측이 얘기하는 것과 뜻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具體的인 問題는 나중에 合意書 文案을 整理할 적에 확실히 해두자,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選手團 構成問題에 있어서는 團長制를 單一團長制로 할 것인가, 共同團長制로 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놓고 長時間 討議를 거듭했습

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意見이 팽팽하게 맞선채 조금도 接近을 볼 수 없는 이러한 狀態에서 오늘 接觸이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接觸에서는 選手團 構成問題를 團長問題까지 討議를 하다가 그 나머지 部分에 대해서는 다음 接觸으로 課題를 남겨놓는, 그래서 현재 團構成問題만 하더라도 任員構成問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 앞으로 討議를 남겨놓고 있고 나머지 問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7, 8, 9, 10項에 대해서는 다음번 接觸에서 討議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接觸期間中에 이야기된 것 가운데 몇가지를 參考로 소개를 해드리면 예컨대 우리의 입장은 어떤 問題에 基本的인 意見一致가 됐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合意가 다 돼서 금방 單一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對外的으로 發表를 해가고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우리의 입장은 그러한건데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實踐的인 立場을 가지고 정말로 單一팀이 形成될 경우에 問題가 없는 方向에서 問題를 하나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北側이 어떤 項目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選手團 構成問題 중간까지 가 있는데 나머지 問題에 대해서도 다 合意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보면 討議할 필요가 더 남아 있는데도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겨레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하는 우리의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번 接觸에서 우리가 北側에게 實務的인 立場에서 주문을 한 것은 그동안 1次接觸, 2次接觸 동안에 우리側 案만을 놓고서 協議를 進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北側은 말로는 「合意書 草案」이다 하는 것을 내놓았는데 이 合意書, 用語를 뭐라고 붙이는 것은 우리는 중요하지가 않다. 內容을 어떻게 構成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現在까지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狀態는 1次에서 5次까지의 本會談과 그리고 1, 2次 接觸을 망라해서 北側이 구두로 提案한 것 까지를 總體的으로 우리 스스로가 整理한 것을 가지고 놓고 보아도 예컨대 選手選拔問題와 關係해서 基本的으로 우리側에 同意를 했고 또 異意가 있다고만 表現되어 있지, 이의가 있을 경우에 北韓側은 그 項目을 어떻게 設定하자는 것인지 具體的인 表現이 우리側에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다.

그래서 정식으로 北側에게 했습니다. 이번 接觸에서도 北側이 整理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3次 接觸때에는 꼭 좀 그것을 가지고 나와 달라 이렇게 要求를 했습니다.

아마 3次接觸때는 整理를 해 가지고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總體的으로 보면 單一팀構成 時限이라고 하는게 점점 박두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좀 더 討議에 박차를 가해야지만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다음 3次接觸 때에는 全般的인 討議는 물론이거니와 나머지 異見이 있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討議를 더 해서 거기에 대한 異見折衷을 해 놓아야지만 6次 本會談에서 成果的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問題는 지난번 接觸에서 雙方間에 異見이 있었던 呼稱問題에서 中國語 表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問題, 그리고 選手選拔에 있어서 南北選手間에 공개리에 選拔戰을 실시하는 問題, 그리고 또 採點種目에서 두사람 이상이 出戰을 할 경우에 적어도 한사람은 相對側 진편의 選



手도 包含시키도록 한다는 問題를 北側은 다른 種目에도 適用을 시키자, 이렇게 主張을 했었는데 1次接觸때에 여기에 대해서 다음번 接觸때 北側이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接觸서두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意見を 가져왔는지 문의를 했습니다만 北側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問題를 討議한 後에 이야기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가 결국 거기에 대한 意見を 오늘 提示를 받지 못한 狀態로 오늘 接觸이 끝났습니다.

다음 接觸은 12月 15日날 金요일입니다. 金요일날, 다시 만나기로 그렇게 約束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2. 質疑・應答

**質問 :** 우리 쪽에서 單一團長, 저쪽에는 共同團長인데요. 저는 우리쪽이 提示한 單一團長이 合理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選手團 比例에 따라서 團長 한명을 두자는 것이 우리쪽 主張 아닙니까? 그러면 團長은 하나고 그 다음에 副團長制가 있을텐데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答辯 :** 副團長制가 있습니다. 적은 側에서 副團長을 하자는 게 우리側 案입니다.

**質問 :** 적은 側에서 副團長으로 하자. 그러면 차라리 單一團長은 많은 쪽에서 하고 副團長制는, 양쪽에서 共同團長을 우기니까는 副團長制를 둘을 두는 方法으로는 한번 얘기를 안하셨습니까?

**答辯 :**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案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적은 側에서 副團長을 똑같은 쪽에서 똑같은 사람 둘로 두

자는 얘기는 아니죠?

質問 : 양측에서 하나씩 나오게, 團長이 …….

答辯 : 그렇게 되면 團長, 副團長만 해도 지금 기우는 傾向이 있다고 해서 異意를 提起하는데 오히려 거기에다 또 副團長까지 하나를 더 追加한다면 北側 主張하고는 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質問 : 한번쯤은 제시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단장문제가 그렇게 복잡하다면 副團長制가 있으니까는 두명을 두는 方法을 한번 …….

答辯 : 團長問題와 관련해 가지고 趣旨를 說明을 드리면 簡略하게 說明을 드리겠는데 우선 團長이라고 하는 것은 單一팀이 하나의 몸통이 되는데 머리가 둘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基本的인 立場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技術上으로 볼 적에도 IOC 憲章이 選手團은 團長은 1名을 두도록 되어 있고 또 그리고 OCA 憲章에서도 말하자면 團長이란 이런 問題는 IOC 憲章을 준용한다 이렇게 OCA 憲章 3條에 明白하게 規定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國際的인 慣例나 規定으로 봐 가지고도 團長은 하나야 되고 또 그리고 團을 통솔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會談을 國內에서 南北間에 會談을 하지만 現地에 가서까지 사사건건 南北會談을 해가지고 問題를 처리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우리가 團長은 하나여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

또 그리고 조금 더 次元을 높여서 생각할 적에도 民族團합이라고 하는 側面 적어도 民族團합을 對外的으로 이걸 보여줄려고 하려는 항상 말은 單一팀이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代表者가 둘이 항상 쫓아 다녀 가지고야

되겠느냐?

北側은 오히려 손잡고 다니면 좋다고 보지 무어라 하겠느냐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런 大會에 나가면 NOC 委員長이 南北에서 나가서 그것만 하더라도 雙方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서로 사이 좋게 지낸다는 것은 NOC 委員長끼리 사이 좋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몸통이 하나인데 團長이 둘인데도 사이 좋게 지낸다는 건 이견 團合의 과시 측면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團長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팀의 能力을 얼마만큼 發揮하느냐 하는데 있어서 決定的인 權限을 준 것이 團長인데 團長이 둘이다 보면 결국은 實力을 發揮할 수 없다.

그러니까 單一팀構成 趣旨가 民族的인 團合도 과시를 해야 되지만 民族의 훌륭한 기량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團長은 반드시 하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고, 과거에 東西獨의 先例를 보아도 共同團長의 여러가지 問題가 있었고, 北側은 지금 調節委員會도 共同委員會 委員長이 둘이었는데 왜 못하겠다고 그러는거냐.

사실 우리가 지금 會議體에서는 共同委員長이 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지금 單一팀 共同推進委員會 自體는 共同委員長을 南北에 하나씩 따로따로 두자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왜냐하면 그런 雙方間에 協議를 하는 기구고, 그러나 選手團 만큼은 몸통도 하나고 머리통도 하나여야 되겠다 하는게 우리의 立場입니다.

**質問 :** 그러면 北側에서 OCA 憲章이나 IOC 憲章을 알면서도 共同團長을主張하는 理由는 어디에 있습니까?

**答辯 :** 北側이 얘기하기로는 그거예요. 單一팀을 構成하는 外國의 先例는 없

있던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스포츠 「룰」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을 굳이 設定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問題에 대해서는 서로 讓步를 할 수가 없는 平行線을 긋는 狀態로 오늘 討議가 끝났습니다.

質問： 15日날 이 問題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는데요.

答辯： 15日날은 지금 「團長」項까지도 討議가 됐으니까 그 다음項부터 討議를 다해야 되리라고 보고 그리고 나머지 團長問題라든가 1次接觸때 雙方間에 異見이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再折衷을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呼稱이나 단기, 단가에 合意를 基本的으로 한 것은 지금 南北體育會談 史上 유례가 없을만큼 큰 前進을 본건데 現實的으로 우리가 南北單一팀을 만들려고 하려는 적어도 選手選拔을 위해 가지고 南北을 選手들이 往來할 수 있는 그 길이 반드시 트여질 수 있다 하는 것이 相互間에 確認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單一팀을 構成이 돼서 우리가 현지에 나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團合도 과시하고 기량도 충분히 發揮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것을 構成하는데 있어서 하나하나를 잘 정돈해서 合意를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質問：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用語上의 問題로 상당기간 한 30분동안 討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合同訓練과 強化訓練, 거기에 대칭해서 북쪽에서 共同訓練과 綜合訓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로 얘기를 나누어본 결과 어떤 差異點이 나타납니까?

答辯 : 그 내용에 대해서 代表가 주로 거기에 대해서 討議를 했는데 朴代表가 말씀하실까요?

答辯(朴秀蒼) :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合同訓練이라고 하는 것은 南과 北의 選手들이 別個로 訓練을 할 수도 있고, 섞어서 混成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北側에서 얘기하는 共同訓練이라고 하는 의미는 南과 北의 選手들이 항상 섞어서 混成을 해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까 저쪽 김세진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네가 지금 저쪽의 首席으로 나온 장웅 대표는 『그것이 아니다. 南側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섞어서도 하고 별개로도 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해서 지금 用語問題는 뜻은 같으니까 用語問題는 나중에 合意書를 作成할 때에 어떤 것을 選擇을 할 것인지는 그때가서 協議를 하자, 지금 이런 정도인데.

저사람들이 앞으로 자기네들의 用語인 共同訓練이라든가 하는 用語를 나중에 合意書를 作成하는 그 段階에 가서도 자기 것을 고집할 것이예요. 그렇게 봅니다.

答辯 : 제가 조금, 여기 專門家, 體育分野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제가 부연해서 說明을 드리면 우리가 選手選拔戰을 적어도 合同訓練 마지막 단계에서 南北의 選手間에 공개리에 選拔戰을 實施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基本立場인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볼 적에 合同訓練問題는 選手選拔의 마지막 段階는 合同訓練 期間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南北選手間에 訓練을 나누어서 할 수

도 있고 또 섞어서도 할 수 있고 이러한 概念이 包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合同訓練의 概念이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北側의 한 대표가 說明하는 過程에서 共同訓練, 合同訓練 이라고 하는 것은 南北의 選手가 섞어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하고 넘어갈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見解差異가 상당히 있는 듯이 나타나 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質問 : 오늘은 일단 選手訓練에 관해서는 用語上的 問題만 빼고는 合意가 된 겁니까?

答辯 : 그렇습니다. 基本的으로 合意가 된 겁니다. 基本的으로 意見一致가 된 것이지요.

質問 :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種目別로 南北을 상호 往來하면서』 실시할 수 있는지?

答辯 : 『南北을 상호 往來하면서』라는 項目을 北側은 그동안 표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側이 要求를 해서 『南北을 相互往來하면서』하는 말을 넣기로 合意했습니다.

質問 : 1회 이상 하는 것으로요?

答辯 : 1회 이상 하는 것은 選拔戰을 1회 이상하는 것, 그것은 지난 1次接觸때 合意를 했던 것이고…….

質問 : 訓練은 合同訓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한 合同訓練을 南北을 往來하면서 하고…….

答辯 : 往來하면서 실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回數는 共同委員會에서 정할 事項으로 넘겨진 것이죠.

그럼, 감사합니다.